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4월 4일(음력 2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622 호

신행의 바른 길 닦아요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신해행증' 주제로 18일부터 4주간 개최

광주승보회 · 本社 주최…KT센터 대강당서


혜거 스님


미산 스님


월호 스님


영진 스님

" '信(믿음)解(이해)行(실천)證(깨달음)'의 체계를 바로 알고 신행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불교강좌인 2007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혜월)와 광주 승보회(회장 석장, 문빈정사 주지) 공동주최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불교의 기본 신행체계인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좌일정은 4월 18일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 선원장)의 '믿음(信): 불자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25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이해(解): 바르게 아는 것, 정법의 출발', 5월 2일 월호 스님(쌍계사 강원 강사)이 '실천(行): 믿음은 실천 속에서 피어나는 것' 9일 회향식에는 영진 스님(전 조계종 기초선원장)이 '증득(證): 참다운 불법은 깨달음에 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신해행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재가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의 시간은 총 70~80분으로 강의가 끝난뒤에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강의중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사와 청중들이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회로 진행된다.

또 오후 6시 40분부터 식전 행사로 영상물 시청과 저녁예불이 진행되며, 강의 후에는 보왕삼매론이 봉독된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운영위원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광주지역 불교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연결 고리이자, 불자 대중의 의식화와 불교사상의 대중화를 추구하기 위한 열린 대강좌"라며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열린 대중강좌 형태를 취하며 불자대중과 관심있는 일반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광주시청 및 각 구청 불자회와 운전자회, 포교사단 등 광주지역 30여 재가신행단체가 참가하고 있다.(062)234-009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KCRP 5월 5일 방문 교류협력 논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 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는 5월 5~8일 평양을 방문한다.

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국내 종교계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KCRP는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KCR · 위원장 장재언) 초청으로 방북해 남북 종교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평양방문은 북측 KCR과 교류협력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최근덕 대표회장을 비롯해 각 종단 지도급 인사 40여 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26일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불자들이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사진=박재완 기자

어제와의 대화로 내일 연다

3월 26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붓다' 5월 24일까지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 진수를 보여줄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 문을 열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동춘 원명 초우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김의정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은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는 물론 성보를 통해 문화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불교 유형문화의 진수를 한눈에 보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가는 명실상부한 기념비적 종합문화공간이 완성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사바세계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요, 낱낱 중생들의 삶이 모두 성보 아님이 없거든 모름지기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도리를 이 자리에서 깨치는 정각도량이 되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축하메시지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식후행사로는 전시개막식 테이프 커팅과 현판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전시장 관람과 리셉션이 이어졌다.

불교중앙박물관은 360여 평의 전시실과 150여 평의 수장시설, 30여 평의 보존처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은 '불교미술', 제2전시실은 '불교역사', 제3전시실은 '불교공예'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며, 시청각실도 갖춰져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과 반환에 대한 의견차를 겪고 있는 '석가탑 출토유물(국보 제126호)'은 결국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지 못했다. 조계종은 해당 유물의 전시 부스를 비워두고 반환이 이뤄지지 못한 과정과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심'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한 채 전시하고 있다.

금동불입상(국보 제182호)과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 등 12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는 개관특별전 '붓다(佛)'는 5월 24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어른 2천원, 학생 경로 1천원. 스님과 장애인,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은 무료이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50% 할인혜택이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02)2011-196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어린이지도사 4일부터 자격증 갱신

불교어린이지도사증 교부 후 3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자격갱신이 실시된다.

갱신대상자는 자격갱신 요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2매, 3년간 포교활동 보고서, 자격 갱신료 등을 첨부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조계종 포교원(02-2011-190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I love Buddha / 탐진치

용정운(www.zento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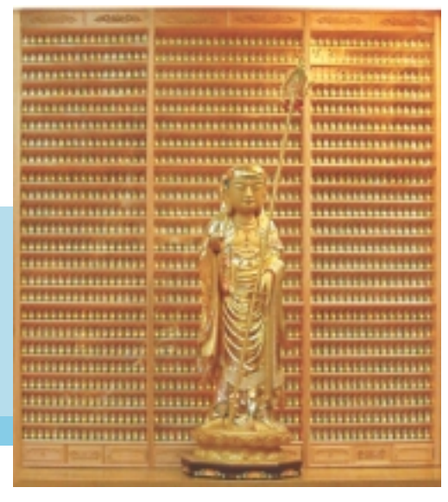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후원 ARS : 060-700-1080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궁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고칠 것 많은 중앙종회”

김응철 교수 13대 활동 분석 · 해결책 제시해 눈길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과 · 사진)가 제13대 중앙종회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점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창립준비위원장 만초)가 발간한 ‘대중공사 자료집’에 실렸다.



#선출과정부터 바꿔야

중앙종회는 구성과정에서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이 계파나 종단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교구별 직선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지나친 과열이나 금권선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직능직은 종단 각 직능별 의견이 반영되고, 대표성 있는 스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구 내 모든 유자격자들이 투표하고, 1위가 투표참여자의 과반수를 넘을 때까지 반복투표를 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중앙종회가 유력인사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2회 연임한 중앙종회의원은 1회는 수행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상임분과위 운영 확대

제13대 중앙종회에서 발의된 총 43개 종법개정안 중 통과된 의안은 11건, 차기로 이월된 안건은 27건, 종결 3건, 부의 2건이다. 중앙종회 입법기능의 효율성을 의심케 하는 수치다. 중앙종회 의안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임분과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상임위 활동에 각종 여론 수렴과 연구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도 종단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있고 반드시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제한할 필요도 있다.

#권한 분산 · 종책 결정 확대

중앙종회 권한이 총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원로의원 추천권,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권, 호계위원 선출권 등 선출기능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종책 결정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윤리장전 · 징계제도 필요

서울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로 중앙종회의원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앙종회의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연수와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중앙종회 내에 외부인사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정승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무원과 중앙종회의원 윤리장전을 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급 단체들과 의사소통 모색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종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종책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하는 종헌종법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각 교구본사, 신도회 및 단체, 일반 사회의 유관조직과 정기적인 간담회, 청문회, 토론회, 세미나, 연석회의 등과 같은 모임을 자주 개최해야 한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증원

종단 승가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도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활동력을 갖춘 스님들로 구성해 상징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종책모임 연구모임으로

중앙종회 내 여러 종책모임이 계파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기보다 종책 산출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중앙종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회 사무처에 입법과정에 밝은 출 · 재가 인사로 전문위원제를 둬 자문을 구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종정교시’ 2표차로 부결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사면 위한 종헌개정 못해…성문 스님 등 ‘사면’ 동의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7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찬성 50표, 반대 18표, 무효 2표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총 7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2표가 넘어야 통과될 수 있었지만 2표가 모자랐다.

종정 법전 스님은 22일 발표한 교시를 통해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26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4년 멸빈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큰 잘못이 있지만 이젠 벌써 13년이 지났으므로 종단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와 파렴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범위에서 종헌개정을 재청했으니 이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중앙종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9일 속개된 임시중앙종회에서 98년 해종행위 징계자에 대한 사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98년 징계자 중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멸빈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된 성문, 현소, 원학, 정우, 월탄, 남현 스님이 대상자다.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또 영축총림 방장 지종 스님,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추대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규위원에 화범(재적본사 봉선사), 성일(법주사), 법선(통도사), 지연(범어사), 청학(송광사), 성천(법주사) 스님이 선출됐으며, 재심호계위원에 현봉 스님(송광사)이 선출됐다.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불국사에서 위탁한 석가탑 내 발견유물 일괄반환을 위한 성명서’와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1억3554만4천원이 증액된 183억3405만9천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49억2829만6천원이 증액된 83억6006만원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시중앙종회는 욜 부처님오신날 후 다시 여는 것을 전제로 29일 폐회됐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은 3월 29일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종단 유공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혜초 스님이 유공선사 스님들의 영전에 헌화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중흥 유공선사 추모다례재 봉행

태고종, 한암 · 묵담 등 140명 추모

태고종은 3월 2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그동안 종단중흥에 앞장서 온 140여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 및 전승관 봉헌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회를 계기로 종단 발전이 기대된다”며 “종단스님들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오로지 묵빈대처하며 오직 한길로 용맹정진에만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에 맞춰 역대 선조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발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은 “불교는 그동안 국난극복에 앞장서왔다. 요즘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유공선사 스님들은 방한암, 한용운, 송만암, 국묵담, 박대륜, 권상노, 김법린, 박한영, 이지암, 최범술, 임석진, 안진호, 이능화, 정보성, 안덕암 스님 등이다.

태고종은 선사 스님 선정의 범위는 숭유배불로 꺼져가는 한국불교를 되살리고자 직 · 간접으로 헌신했으며, 해방이후 전통종단의 법통과 법맥을 지키는데 일조한 스님과 확고한 종단관으로 애종심을 발휘해종단발전에 노력한 스님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원융종 창종 30주년 국태민안 기원대법회



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3월 26일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 대연회장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30주년 기념 및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종사이운과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대법회에서 총무원장 성관 스님은 “창종 30주년을 계기로 종단 사찰들이 원융무애 사상을 널리 선양해 지역불교 중흥의 기수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 회상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종정 일공 스님은 법어에서 “원만해 막힘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래서 세계는 원융일가이다. 원융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새 시대 새 세상이 되도록 더욱 정진해 달라”고 법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융종 부종정 법신 · 천호, 종회의장 체의, 고문위원 신수, 일공문도회장 평신, 비구니회장 선덕, 국회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함종한 前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승려교육장 개원 미륵종 창종기념법회도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8일 김해시 관음정사에서 제15회 창종기념 및 중앙승려교육장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승려교육장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연건평 200평 규모로 완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륵종 종정 연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미륵종 교육원장 정업 스님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 김해경찰서 백광술 서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교간 협력으로 평화를”

몬시뇰 신부 지관 스님 예방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사무차장 마차도 몬시뇰 신부가 3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과 마차도 몬시뇰 신부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간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남동우 기자

大韓佛教曹洞宗主催
第8代 總務院長 大隱堂 德牛禪師 就任 大法會

證　明
1. 宗正 : **尹智明 德瓚 大禪師**
2. 中國佛教協會副會長兼曹洞宗發願地 洞山菩利禪寺 住持 : **釋純一大禪師**
3. 僧正院長 : **韓春潭 德春 禪師**

顧　問 : 德昊(副宗正) 德俊, 德光, 德岦, 德周 德一, 德炯, 慧空(以上 本宗團 僧正 7분)

指道委員 : 德蓮, 德雲, 德山, 慧泉, 行文, 行滿 海日, 行照, 德岩, 德潤, 德熊, 慧光

就任準備現長委員
- 總務分科 : **嚴法華 總務部長**
- 儀典分科 : **李慧山 監察部長**
- 護法分科 : **趙行修 糾正部長**
- 文化分科 : **金能一 文化部長**
- 財務分科 : **李法蓮 財務部長**
- 社會分科 : **金行法 社會部長**

就任式進行 : **金法空(淸心素喜門道會長)**
집전 : **張顯空(敎務部長)**

就任準備 副委員長 (全國 12個 敎區宗務院長)
- 서울敎區 宗務院長 : **金德龍**
- 大邱敎區 宗務院長 : **朴慧法**
- 京畿敎區 宗務院長 : **李一覺**
- 永南敎區 宗務院長 : **權淸潭**
- 江原敎區 宗務院長 : **孫慧覺**
- 慶南中部敎區 宗務院長 : **梁海日**
- 永東敎區 宗務院長 : **安慧光**
- 慶南西部敎區 宗務院長 : **黃法光**
- 忠北敎區 宗務院長 : **釋慧惺**
- 釜山敎區 宗務院長 : **鄭德正**
- 慶北敎區 宗務院長 : **朴雲鶴**
- 南海敎區 宗務院長 : **車行悟**

◆**일시** : 불기 2551(서기2007)년 4월 9일 12시 ◆**장소** : 하림각 ◆**문의** : 02)2091-0408 / 팩스 02)951-0480

大韓佛教曹洞宗 第 8代 總務院長 就任準備委員會 **就任準備委員長 金統元(行元) · 奉行委員長 宋德性(行性)** 합장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 준비위 구성

“천 년 전 시작된 대장경 편찬 불사는 다가오는 천 년에도 계속된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가 4월 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1년 고려대장경 천 년의 해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장경 조성의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한다.

2011년은 1011년 고려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된 지 천 년이 되는 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천 년의 지혜를, 천 년의 미래로’라는 모토 아래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마련했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일본 하나조노대학과 공동으로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판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고려 초조대장경은 송나라 개보대장경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조성된 대장경. 하지만 그 존재가 알려져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7년부터다.

1만1000여 권에 달하는 초조대장경의 목판은 소실됐고, 인본(印本)이 일본 교토 남선사에 2000여권, 대마도에 600여 권, 우리나라에 300여 권 등 총 3000여 권이 남아 있다.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연구협정을 체결하고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판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1년까지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와 연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과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 등을 포함하는 문화 · 학계 전문가 100인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천 년의 해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준비위원회는 4월 2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구축, 학술회의와 정기 강연회 개최 등 고려대장경의 역사 · 문화사적 의의를 알리는데 나설 예정이다.

종림 스님은 “흔히 부처님의 가피로 외세의 침입을 막으려 조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고려대장경은 당시 사회의 문화 · 예술 · 지식체계를 결집한 당대 아시아 지식사의 결정판”이라고 강조한다.

초조대장경 간행을 시작으로 교장(속장경),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대장경 간행의 역사는 단순한 ‘불경(佛經) 편찬’이 아닌 곧 우리나라 지식의 결집체라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은 “초조대장경은 이번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라며 “서지학적 중요성 외에도 각필, 도장, 판화 등 문화사적으로도 ‘보물창고’라 할 만큼 학술적 가치가 풍부하다”고 설명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출 · 재가 함께하는 종단청정위원회 제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단체…총무원장 면담 등 계획

조계종 사법제도 개혁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출 · 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단청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 등 11개 단체는 3월 27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자정기능 제고를 위한 (가)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수석 부의장 법안 스님은 “종단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기 보다는 인맥과 권력, 심지어 금력에 의해 좌지우지 돼 대중들로부터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종단내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종단 안팎의 신뢰를 견인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퇴보시켜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종단의 공동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 청정위원회를 총무원장 직속 독립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김희욱 공동대표도 제안 설명을 통해 “종단청렴도, 종단투명성을 개선할 법과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단청정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해 사법기능 회복 및 미래지향적 사법제도 수립,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문화적, 제도적 개선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은 문중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종단의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종단청정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실무자들은 빠르면 내주 중으로 총무원장을 비롯한 간부급 스님들과 면담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태허 스님 38주기 추모재 12일 현충원서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의 독립정신과 불교사상을 기리는 38주기 추모제가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운암기념사업회 민성진 사무국장은 “태허 스님은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하시며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치셨다”며 “이번 추모제는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스님의 기일인 4월 12일에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해인사-경북대 문화학술 교류

조사 · 연구 공동진행 등 협정체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와 경북대학교(총장 노동일)가 3월 27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문화 ·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해인사가 외부 기관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이번 협정으로 불교문화 규명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특히 팔만대장경 경판 및 판전, 사간 장경 등 해인사 소유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 연구와 불교 사상, 불교예술 등 불교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가 공동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는 해인사 승가대학 교과과정 중 교양 및 외국어 분야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해인사는 불교학, 불교사상, 불교사 등 경북대학교 교양과정과 전공 과정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해인사 기획국장 만우 스님은 “세계 전역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

한편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본해)은 4월 1일부터 목판특별전 ‘유일(唯一)’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고려 초조대장경판본으로 추정되는 현존 가장 오래된 목판인 ‘화엄경 수창판’을 비롯해 ‘80화엄경 변상’ ‘대각국사 문집’ ‘불설예수시왕경’등 국보 206호 진본(眞本)과, ‘역대왕조년표’ ‘불정심다라니’ 등 보물 734호 진본을 포함, 모두 36점이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경북대 노동일 총장이 문화 ·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과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통일신라 묘길상탑 은제사리병’도 불교공예실에 단독 전시된다. 불교조각실에서는 통일신라기 해인사 출토 소탑편(小塔片)도 최초 공개하는 ‘특별전 속의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꽃길 걸으며 상생 · 화합 · 평화 염원

‘날마다 좋은날’ 14일부터 전국서 걷기명상

“꽃길을 걸으며 화합과 평화 염원해 보세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은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명상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걷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걷기명상’은 올해 ‘상생 · 화합 · 평화’를 주제로 전국에서 진행된다.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의 지도로 걷기명상을 배워보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빈 그릇 운동’을 직접 실천해본다. 이어 시민과 불자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과 놀이마당도 열린다.

전국명상투어는 4월 14일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를 시작으로 15일 대전 남문광장, 21일 속초 영랑호, 29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점심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5월 5일에는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공동으로 오대산에서 걷기명상을 개최한다. 묵언으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약 10km 거리를 걸으며 진행되는 이날 걷기명상에서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전나무 숲길을 삼보일배하고 팔각구층석탑을 탑돌이 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장기기증 실천 서약과 주먹밥을 나누는 나눔마당, 선재농장에 꽃씨를 뿌리는 평화마당도 색다른 체험거리다. 볼거리를 위해 인도 유물 유적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상원사 동종과 선원도 개방된다.(02)733-7277

남동우 · 여수령 기자

낙태 부추긴 사회문화 ‘반성’

화계사 타태영가천도 49재 봉행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하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그러하듯 이 이치를 만 생명에 적용할 것인 즉,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법구경〉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가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미혼모에 대한 냉대 등 낙태를 부추긴 사회문화를 성찰하고 개인의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타태영가천도를 위한 49재’를 시작했다.

이번 기도는 참회에서 발원으로, 발원에서 불살생 실천으로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수행의 일환으로 봉행된다.

타태영가천도를 위한 49재는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49일 동안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릴레이 기도로 봉행된다. 기도입재는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이 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한다. 회향일에는 보살계 수계식도 열린다. 전계사는 화계사 회주 설정, 교수사는 약천사 회주 혜인, 갈마사는 前 통도사 주지 태응스님.

수경 스님은 “타태영가 천도재를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는 낙태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49재 의미를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한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 이민의 땀 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묻힌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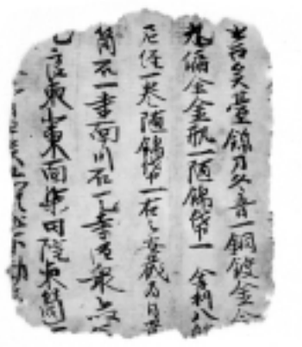
조계종-국립중앙박물관 법리 해석 맞대응

문화재 보호법 vs 보관 권리



3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내옥 유물관리부장(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계종-"허락없이 유물 형상 변경 등 법 위반"
국박-"40여 년간 보관해 온 기관 법적 권한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3월 9일 공개한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일부.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물의 현상을 변경하고 공개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조계종)

"우리가 취한 조치는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 예비단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해당 유물을 40여 년간 보관해 온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국립중앙박물관)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반환을 둘러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의 의견대립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3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반환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정권을 행사하고, 소유주와 문화재청장 허락을 얻지 않고 해당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와 공개를 하는 등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환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반환불가 입장을 조계종에 통보한 것 역시 부당한 행정권한 행사라고 조계종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경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존처리가 아닌 예비단계의 조치일 뿐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묵서지편(墨書紙片, 먹으로 쓴 종이뭉치)을 낱장으로 분리한 것은 응급조치일 뿐 물리적 · 화학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보존처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석가탑 출토유물은 1967년 당시 문교부장관의 '문화재 이관명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불국사가 위탁한 문화재가 아니다"며 "불국사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결정 후 필요하다면 40여 년간 해당 유물을 보관해 온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반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석가탑 출토유물의 이관에 관한 결정을 문화재청에 넘긴 상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령 기자



석가탑(국보 제21호)

"다라니경 신라때 제작"

안승준 연구원 "중수 시 재안치" 고려 제작설 일축
'불국사석가탑중수기' 공개 촉구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권 논란의 한 편에서는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중 묵서지편(墨書紙片)과 비단에 쌓인 지류뭉치의 '연구'가 학계 · 언론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묵서지편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여러 문서들이 한데 뭉쳐있어 그동안 판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묵서지편을 촬영하고 판독한 후 3월 9일 "110여 쪽에 이르는 묵서지편은 ▷보협인다라니경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1038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보시명공중승소명기(布施名公衆僧小名記) 등 최소 4종으로 구성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이하 중수기)' 사진 3장과 판독문 전문도 공개했다.

한 언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중수기 내용을 두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대됐다.

그러나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3월 24일 열린 신라사학회에서 "중수기의 전후 문맥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시대에 제작되어 석가탑에 안치된 것으로, 석가탑 해체 보수 시 다시 넣은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3월 2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라 특유의 서체와 종이 가공법, 섬유의 치밀도 등을 분석해 볼 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 연대는 신라시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준 연구원이 해독한 바에 따르면, 석가탑은 신라 경덕왕 1년(741)에 개창해 혜공왕 대(765~780)에 완성됐으며, 285년이 지난 뒤 중수했다. 탑의 해체 수리를 현종 15년(1024년)에 시작돼 사리함과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다시 안장했다. 또한 중수기에는 불국사에 주석하는 많은 스님들이 중수를 위해 공양한 물품 목록과 중수할 때의 날씨, 먹은 음식 등을 기록한 '중수일기'가 덧붙여져 있다.

여수령 기자

소림사, 산림법회 60주년…기념세미나

매회 1000여명 자비법문 경청

산림(山林). 산림은 사찰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해 듣고 바른 이치를 알아 공덕을 닦는 자리다.

부산 도심에서 60년간 산림법회를 이어온 사찰이 있다. 소림사(주지 혜전)는 1948년부터 매년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산림법회를 봉행해왔다. 금광스님의 화엄산림(1948~57), 광우 스님의 법화산림(58~67), 철우 스님의 열반산림(68~77) 등 60년간 180여명의 법사스님이 법을 설해왔다. 매 법회 평균 1000여명의 대중들이 법문을 듣고 자비도량참법이라는 대중기도를 해왔다.

소림사가 산림법회 60주년을 맞아 지난 산림법회를 정리하고 부산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기위해 4월 7일 오후2시 소림사 무량수전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의 '산림, 그 의미가 가지는 우리시대의 불교'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김경집 교수(동국대)가 '한국불교 산림법회의 이해'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가 '소림사 산림법회의 포교적 의미와 활동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소림사는 행사 당일 15명의 큰스님의 법문을 모은 산림법회 법문집을 보시할 계획이다. (051)468-4497

남동우 기자

"불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월정사 어린이 단기출가학교 개설, 5월 23일~26일

단기출가학교로 새로운 신행문화를 개척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이번엔 어린이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어린이 단기출가학교는 미얀마 단기출가제도인 신퓨의식을 본뜬 것. 미얀마 남성이라면 누구나 9~12세 사이에 단기간 출가를 하는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된다. 이때 어린이들은 부모,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타마 싯다르타가 왕위를 버리고 불가에 입문하는 모습을 재연한다.

어린이들은 고타마 싯다르타 복장을 하고 전나무 숲에서 월정사로 들어온다. 이어 탑돌이를 세 번 하고 부모님이나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을 한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0명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시청각 교재를 통해 부처님일대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발우공양이나 참선도 필수코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4월 14일 오전 10시 '2007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이하 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대장경법회는 매년 봉행되던 '팔만대장경정대불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일정도 주5일 근무시대에 맞춰 매년 음력 3월 9 · 10일 양일간 봉행했던 것을 매년 양력 4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했다.

대장경법회는 '국운이 융창하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이다'와 '부처님 가르침 훤히 밝혀져 온 누리에 펼쳐지이다'를 주제로 봉행된다.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팔만대장경' 정신이 온 누리에 널리 펼쳐져 나라가 태평하고 국운이 융창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기원한다.

대장경법회의 절정은 참가자 전원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는 모습. 참가자들은 '국운융창, 남북통일, 법륜상전'을 발원하며 대적광전(큰 법당)→대장경판전→해인도를 따라 행진한다.

남동우 기자

광주 원각사 삼존불 점안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대웅전 삼존불 점안을 기념해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산 스님 제자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4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8일 현웅스님(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15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22일 현고스님(광주 원각사 회주) 29일 현장 스님(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5월 6일 현지 스님(광주 원효사 주지) 5월 13일 현호 스님(서울 법련사 회주)이 각각 법문한다. 5월 20일 오전 8시 열리는 삼존불 점안식에는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이 초청법사로 참석한다.(062)223-3168

여수령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

교수사 초빙 및 율원생 모집

고불총림 고불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단, 초의스님을 비롯 근대 만암, 서옹스님에 이르는 계율 정신으로 율맥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 혜권스님의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교수사 초빙 : 0명 ◆

● 율원생 모집

◆응 시 자 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모 집 인 원 : 0명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제 출 서 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반명함) 2매
- 승려증 사본 1부

◆원서교부 및 접수 : 백양사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장 혜권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학 인 스 님 모 집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신입 – 편입 학인스님 방부를 받습니다.

◆ 모집인원 및 대상 : 신입생(치문반) 00명
편입생(사집, 사교, 대교) 0명
◆모 집 기 간 : 신입생(1차) 2007년 3월 31일까지
신입생(2차) 2007년 4월 3일까지 (32기 행자교육수료자)
편입생 2007년 3월 31일까지
◆구 비 서 류 : 행자교육 필증, 수계증 ..... 사본 각1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건강진단서 ..... 1부(32기 행자수료자 제외)
사진(3×4) 3장
수료증 사본 및 수행기록부 ..... 1부(편입생만 해당)
(입방비 20만원)
◆입 학 특 전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규 4년제 지원(사집반 이상)
◆문 의 처 : 강원(지객스님) 061)392-7324 / 종무소 061)392-7502

불기 2551년 3월 일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법 광


황전리마을 사람들이 화엄사 뒷산에 조성된 자연 차나무밭에서 찻잎을 따고 있다.

서로 마음 소통하며 미래 설계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⑦ 지리산 화엄사


화엄사.


화엄사 경내에 활짝핀 매화.


화엄사 4사자 3층석탑.

화엄사는 국보 4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1점, 지방문화재 2점이 있는 조계종 17교구 본사이다. 경내에는 웅장한 아름다움으로 눈길을 끄는 각황전(국보67호)과 20여 동 부속 가람이 배치되어 있다. 일주문을 지나 약 30도로 꺾어서 북동쪽으로 들어가면 금강역사, 문수, 보현의 상을 안치한 천왕문에 다다른다. 금강문 서쪽 방향으로 빗겨 놓은 천왕문 배치가 독특하다.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아랫마을 황전리 마을회관에서 골 깊은 산자락 닮은 사람들을 만났다. 150호에 400여 명이 사는 동네는 산골 마을이라기보다 도시에 가까운 마을처럼 고샅길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가지런하게 쌓은 돌담 사이로 산수유 꽃이 빠끔히 낯선 나그네에게 인사를 건넸다. 황전리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개 짖는 소리가 없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지막한 돌담처럼 오순도순 사는 모양이다.

화엄사 농사를 지어주며 살았다는 한말남씨는 불자가 많아 교회가 들어서지 않는 마을이라고 소개를 했다. 화엄사 이웃으로 사는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오신날이면 일손을 놓고 절집 음식을 만들어 손님을 대접하는 불심을 지닌 듯 했다. 마을에 신도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사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절집을 돕는단다. "옛날에는 화엄사가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스님들이 춘궁기에 쑥 죽도 쑤어먹었습니다. 해마다 절 농사를 지어 수(길미)를 받아 절집에 들여 놓곤 했는데, 좀더 많은 소출을 내려고 노력하며 산 것이 15년이구먼요. 지금은 농사법이 개발되어 흉년도 없고 소출이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선심으로 살아가는 황전마을에도 아픔은 있었다. 농지개량법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황전마을 소작인들에게 화엄사 땅을 불하해 주었다. 소작인들이 몇 년간 상환을 하고 등기를 했지만, 절집이 어렵다는 바람에 개인에게 나눠준 땅을 도로 절집에 돌려줬단다. 국보 사찰인 화엄사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김용섭 이장님이 들려주었다. 전답을 잃었지만 억울함은 없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부처님법 청량수를 먹고 사는 사람다운 말을 했다.

화엄사에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사철 푸르게 자라는 차나무들이 있다. 절집 뒷산에 조성된 자연 차나무 밭은 아랫마을 사람들 품을 사서 채취를 한다. 산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덕하게 생긴 여우순씨는 요즘은 자연을 벗 삼아 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사 양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겄소. 산돼지 잡으라고 말 좀 해주소. 사람이 중허요, 산돼지가 중허요. 산 아래 밭에는 감자 고구마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산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먹어서요."

행정당국으로부터 포획기간 발표가 있지만 엽총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인지라 개체 수는 자꾸 늘어가고 있단다. 버섯을 따러 갈 때도 집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득해졌다. 저녁 해는 급하게 산등성이를 내려와 꾸불텅한 능선을 그려 놓는다. 마음을 열어 놓은 사람들이 저녁노을 같은 이야기를 쏟아 놓으며 나를 물들였다.

황전리 400여 주민 대부분 불자
차 · 버섯 · 수액 등 채취 판매
8개 읍면 중 소득 가장 많아
환경 관광 위한 청사진도 마련

"우리 마을은 구례군 8개 읍면 중 가장 소득이 높은 부자마을입니다. 절집 아랫마을이라서 한국전쟁 이전에는 화전민이 사는 빈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자연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했지요. 가을철에 싸리버섯, 꽃버섯, 능이버섯, 마지개버섯, 송이버섯 등을 채취해서 관광객들에게 팔고, 봄철에는 고로쇠, 거자수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도시에 팝니다. 황금 밭이라는 뜻을 지닌 황전리 마을 이름 덕을 톡톡히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장님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다며 놀이터로 안내 했다. "이것이 당그레 바위(곡식을 긁어모으는 농기구)입니다. 새마을 운동 당시 길을 넓히면서 땅속에 묻어 버렸던 것을 발굴해 다시 복원 했습니다. 그리고 '당그레 거리'라는 길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지요. 아마도 부자 마을이 된 것은 당그레 바위가 마을의 안녕을 빌어 주었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황전리 사람들은 마음 나누기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화엄사 뒷산에서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적당량을 화엄사에 내놓고, 국립공원관리소에도 나눠준단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장님이 마을 발전 청사진을 꺼내놓았다. "구례는 지리산의 제일 큰 관문입니다. 그런데 천왕봉, 노고단, 성삼재에 겨우 삼백대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차를 이용하여 산에 오르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동물들의 안식처를 빼앗는 격입니다. 케이블카를 놓자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황전리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아걸지 않고 소통하며 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듯했다.

마을뿐만 아니라 화엄사(주지 종삼)도 폭넓은 소통을 꿈꾸고 있다. 4월 2일부터 핀란드 헬싱키 국립문화박물관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전통불교'라는 주제를 내걸고 전시회를 연다. 앞으로 포교의 불모지인 유럽지역 전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의 정기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돕는 것 아닐까.

선암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황전리 마을 전경.

마을 지킴이 **오영순** 개발위원장

청렴함과 봉사정신으로 부자 마을 만드는데 앞장



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젊은 날 화엄사 종무소에 근무하기도 했던 그는 정토의 세계와는 인연이 깊다. 한 때 지리산의 도벌꾼 지킴이로 산감 임무를 맡아보면서, 법에 어긋나면 마을 사람들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려서 처벌했단다. 청렴함을 인정받은 그는 18년 동안 이장을 맡았고, 가난해서 하대 받던 마을을 부자 마을로 만들었다. 마을이 우수 민박촌으로 지정받아 농외 소득이 높아지자, 가난의 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행정에 어두워 찾지 못하는 권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주고, 씨족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어 김씨와 박씨가 아니면 이장을 못 하던 불문율을 깨트렸다. 처음으로 해조 오씨인 그가 이장을 맡게 되자 인구가 많은 씨족의 이기주의가 흔들어 댔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고, 마을에 득이 되는 것과 타협하며 공공살림을 꾸려나갔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군청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힘들었지만, 지내 놓고 보니까 뿌듯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이 자연녹지 지역이라 세금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많았는데 주택, 상가 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세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장직을 넘겨 줄 때 마을 사람들은 감사패와 공로패로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노인들에게 무료로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받도록 주선하고 있다.

티태영가천도를 위한 49재를 시작하며...



www.hwagyesa.org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하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그러하듯 이 이치를 만 생명에 적용할 것인 즉,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법구경)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순히 살생을 하지 않는 것만이 '불살생'이 아니라, 공포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불살생의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을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어머니의 태에서 버림을 받은 아기영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왔습니다. 설사 죄의식을 느낀다 해도 그건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우리는 이 천도재를 모든 사회적 폭력이나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 잡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타태영가 천도는 자기 정화를 위한 수행입니다

타태영가 천도가 자기 정화를 위한 수행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식에 그치고 맙니다. 어느 정도 죄의식을 씻어내는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참회에서 발원으로, 발원에서 불살생의 실천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혹은 이 절 저 절로 떠돌면서 천도를 하는 단순 의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윤회의 사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낙태를 방조해 왔습니다. 낙태에 대한 도덕적 부담은 철저히 개인이 짊어진 채 속앓이만 해 왔습니다. 이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부처님 앞에서라도 남김없이 허물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회의 눈물을 생명을 살리는 거름으로 쓰십시오.

타태영가 천도는 불살생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는 이성적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최고의 자살률, 사회적 양극화와 비인간적 경쟁 체제, 환경파괴의 문제 등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만 생명의 뿌리는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부처님의 몸이라고 여깁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 옹호의 사상은 없습니다. 그것의 실천을 위해 불살생을 다짐하자는 것이고, 그 약속의 출발점으로 무주고혼으로 떠돌고 있을 타태영가를 천도하자는 것입니다.

타태영가 천도는 돌봄의 문화와 '생명 감수성'의 고양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서 하고 있는 '빈 그릇 운동'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지구촌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감수성이란 것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가녀린 것에 대한 가없는 연민, 약자에 대한 배려, 보잘 것 없는 풀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를 위해 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타태영가 천도재를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는 낙태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만 생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불기 2551(2007)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화계사 주지 수경 합장

불기 2551(2007)년 4월 1일(일) 오전 10시

❀ **입재법문 :** 도락산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 **4월 1일 입재 후 회향 전까지 기도 일정표**

시 간	주 관	내 용
04:00~06:00	현우스님	예불 및 지장기도
06:00~08:00	묘봉스님	원각경 보안보살장
08:00~10:00	우성스님	아미타경
10:00~12:30	수경스님(주지)	예불 및 장수멸죄경
12:30~14:00	우성스님	아미타경
14:00~16:00	수암스님	지장경
16:00~18:00	중현스님	금강경
18:00~19:00	대중스님	예불
19:00~21:00	수경스님(주지)	장수멸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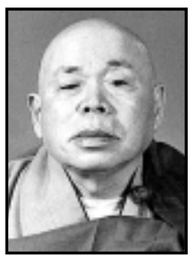
❀ 회향 및 보살계 수계식

○ 회향 : 불기 2551(2007)년 5월19일(토) 오전 10시
○ 보살계 수계식
- 전계사 : 송원 설정큰스님(덕숭총림 수좌, 화계사 회주)
- 교수사 : 도락산 혜인큰스님(제주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 갈마사 : 정악 태응큰스님(전 조계사 , 영축총림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三角山華溪寺

자세한 사항은 화계사 종무소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 02-902-2663 전송 : 02-990-1885

뉴욕 원각사 조실 법안 스님 입적



미국 뉴욕 원각사 조실 법안 스님(사진)이 한국시각 3월 27일 오후 2시 원각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1세.

법안 스님은 1956년 직지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0년 조계사에서 동사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1956년 전북대 정치학과 졸업했으며, 1972년 동국대 부총장 역임했다. 1974년 미국 현지 포교원력을 세우고 미국으로 건너간 법안 스님은 숭산 스님이 창건한 뉴욕 원각사에서 법회를 주도했다.

1976년 뉴욕 원각사 주지에 취임했으며 1988년 뉴욕대에서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직접 쓴 서예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어 포교 기금을 마련한 스님은 맨해튼과 필라델피아에도 법당을 개설해 포교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1989년 미주현대불교신문사를 창간하기도 했다.

스님은 2005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이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아 뉴욕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봉행한 법회에서 '한국불교를 빛낸 사람들'에 선정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일주문



연합 신도교육 강좌 개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10일 순천 포교당 대승사 연합 신도교육 강좌 불교 기초교리와 금강경 강의 개설한다.(061)755-0107



금강산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4월 26~28일 신계사와 법기암터 등을 참배하는 '금강산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02)734-6401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취임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은 4월 1일자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원장에 취임했다. 4월 10일 신임 관장 취임 기념 시사 교양강좌를 연다.(02)739-9501



정기무료의료검진 실시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구자선 단장은 3월 24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3차 정기무료의료검진을 실시했다.



미 대사부인과 자선전시회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3월 28~29일 서울 이태원 갤러리 고색에서 리사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부인과 장애아돕기 자선 장신구전을 개최했다.

고침 지난호(621호) 6면 미륵종 승계수계법회 기사와 관련 수계를 받은 스님은 영경 영산 영명 자웅 대안 스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복지는 중생에 다가가는 불교의 진면목"

복지포교 30년 무차대법회 연 성운 스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 불교계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은 3월 23일 지역사회 복지포교 30년을 기념하는 '무차대법회'를 봉행하고, 불교계가 노인복지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아동 ·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사업을 꾸려 왔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노인복지라는 인식 때문이다.



불교 복지계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성운 스님. 스님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찰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는 불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피고 국가나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1978년 서울 은평구 삼천사에 자리를 잡은 스님은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찰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소녀가장의 부모 노릇이며 독거노인의 자녀 역할을 하면서 복지시설 건립을 발원했다. 10여 년 간의 준비 끝에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위탁 운영했다. 97년에는 법인 직영으로 인덕어린이집과 인덕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됐다. 이후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구립 어린이집, 은평구립도서관, 역촌노인복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수탁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만 2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지난 한해 시설 이용 인원만도 530여 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스님은 '규모'나 '시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위탁 · 수탁 운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불교계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국의 각 사찰들도 재정 형편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시설일지라도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교가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최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원을 건립해 9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인덕원 자리에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해 3500평 규모의 '종합노인복지타운'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 유 · 무료 요양원, 치매중풍시설, 노인복지문제 연구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세상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구어 온 복지사업들이 우리 사회를 불국토로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포교 · 봉사 · 공부를 화두삼아…"

제7대 서울시의원불자회 이종필 회장



"갑작스럽게 회장을 맡게 돼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라의 일꾼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공직에 임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한 제7대 서울시의원 불자회 회장에 추대된 이종필 의원(서울시의회 부의장, 용산구 · 사진)의 각오다.

제7대 서울시의원 불자회에는 정병인(도봉구) 부두완(노원구) 이진식(동작구) 의원 등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서울시 의원이 106명인데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앞으로 불자 의원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시와 불자 시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고 청렴하게 의원활동을 하는 한편,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선거구 의원으로 5~6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27일 법회에는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과 재현 스님(봉은사 교무국장), 조계종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불자회 창립을 축하했다.

여수령 기자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법회



세계불교 임제종은 3월 18일 총본산 김해 송원사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혜공 스님은 "임제종의 선풍진작과 합리적인 종단운영으로 중생교화의 중추종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관음사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대구 영남(한국)불교대학 관음사 부설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3월 28일 개원됐다. 노인전문 요양원 무량수전은 일상 생활 서비스는 물론 상담 의료 여가활동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포교사 품수식 개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김재일)는 3월 24~25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제5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60명에 대한 연수 및 품수식을 개최했다.

김재일 회장은 합격자들에게 "더욱 열심히 정진해 지역과 사회에서 필요한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KTX 운행 3주년 기념법회



한국 KTX불자회(회장 강신욱 기장)는 3월 26일 철도공사 강당에서 양현욱 서울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TX(고속철도) 운행 3주년을 기념 안전운행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은 "KTX 열차를 법당으로 삼아 수행하며 가족을 사랑하라"고 법문했다.

스포츠 스타들 승가원서 봉사활동



스포츠 스타들의 봉사 모임인 함께하는사람들이 3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장윤창(배구) 이진택(높이뛰기) 정재은(태권도) 선수 등 23명의 선수들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100인분의 자장면을 만든 것은 물론, 운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화제의 신간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el: 02)2004-8246(출판부), 02)2004-8219(영업부), Fax: 02)737-0696
여시아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종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눈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범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둘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법문 중에서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왼쪽에서 네번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두번째)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세번째) 등이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범불교 지지대회

불자 3000여명 참석 헌등 · 유치의지 다져
지관 스님 "전체 위한 일" 적극 지지 표명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불자들의 힘으로!'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범불교 지지대회(이하 범불교 지지대회)'에 참석한 3000여 사부대중 때문이었다. 꽃샘추위도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채 10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과 불자들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범불교 지지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비롯해 각 종단 주요 인사들과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본 행사에 앞서 펼쳐진 유치기원 길놀이와 음성공양, 육법공양의식이 범불교 지지대회 분위기를 돋웠다. 유치단 입장에 이어 기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지관 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유치기원 헌등,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강원불교연합회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속초 신흥사 부주지 우송 스님, 홍승기 불교방송사장의 유치기원 헌화가 진행됐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의 환영사에 이어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위상이 달라질 뿐 아니라 브랜드의 상승, IT · 환경기술의 세계시장 선도로 3만 불 소득시대에 진입해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부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2014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난 2월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15조2087억원, 부가가치 7조1376억원, 고용증대 22만 42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실로 국가 총력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들도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당신들이 직접 나섰을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실천토록 권장하신 것을 볼 때, 우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를 위해서"라며 불교계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이 애드벌룬에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글귀를 적고 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도 김장실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오늘날 국제스포츠 행사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하는 장이고, 이를 계기로 국가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불교계의 적극 동참과 성원을 부탁했다.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삼관왕을 달성한다. 또한 동 ·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되며 동 ·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한 6번째 국가가 된다.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가 있는 평창 지역과 관련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생태 환경이나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지역인 평창에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화해와 상생과 번영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국제적 이벤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화해와 상생과 나눔"이라며 "마음에 등불을 켜고 나무관세음보살을 암송하면서 유치를 기원하고 거리홍보는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유치의 전령사가 되자"고 제안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교무관리실장 백운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유일하게 분단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원도에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개최해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생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추위에 떠는 참석자들을 위해 준비한 격려사 대신 '평창'이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친 뒤 "꿈은 이뤄진다"며 강한 힘을 불어넣었다.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의 유치 지지선언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유치 기원문 낭독에 이어 이날 참석한 주요 귀빈들은 커다란 애드벌룬에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을 했다.

애드벌룬은 커다란 축포 소리와 함께 조계사 앞마당에 두둥실 떴다. 불교계의 염원을 담은 이 보름달과 함께 손에 쥐었던 풍선들이 하늘 높이 오르듯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불교계의 염원도 함께 솟구쳤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관 스님과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기원 모습.


지관 스님이 유치기원 헌등을 하고 있다.


유치 기원 기수단들의 퍼레이드.

육각거북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건강매트
육각거북열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매트 더블 140×200cm
금강약돌 건강매트의 특징
금강약돌 건강매트는 육각거북 열침이 약 2500개(더블매트)가 부착되어 있어서 높고 부드러운 온열감과 열침의 효과로 건강매트에서 주무시기만 하여도 인체의 이완된 근육과 뼈마디를 정상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각 관절 및 연골의 자리를 부드럽게 하여 관절염, 류마티스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육이완 작용을 도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며 부드럽고 탄력 있는 신체를 유지합니다. 모세혈관 확장 및 혈액정화 작용으로 피를 맑게 하고 머리를 상쾌하게 하며,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피부 미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강약돌이 주원료인 육각거북열침에서는 상온(常溫)에서 93%, 50℃에서 95%이상의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며,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원소가 60여종 포함하고 있으며, 공기중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 이상 방출되어 인체의 건강증진과 활력증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금강약돌 육각거북열침 인체 효과
혈액순환 촉진 • 모세혈관 확장 • 백 · 적혈구 증기 • 혈류량 증가
각종 질환 해소 • 부인병, 산후조리, 수술후 회복, 중풍, 간장 · 심장질환고 · 저혈압, 당뇨 해소
통증성 질환 해소 • 우신경, 관절, 근육통, 신경통, 타박상 해소 • 근육이완 효과
세포기능 활성화 • 세포 신생부활 촉진 • 암세포 증식억제예방 • 내장기 세포 활성화
발한촉진 효과 • 축적 노폐물 배출 • 과잉섭취 염분 배출 • 유해 중금속 배출 • 숙취 해소
피부기능 강화 • 미백효과 • 숙변 · 비질 해소 • 무좀, 습진 등 피부질환 해소
신경계 조절 • 자율신경계 항상 • 교감 · 부교감신경 자극 •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 해소
신진대사 항상 • 내장기관 활성화 • 내분비 호르몬 강화 • 혈액 알카리성화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3> 시주 은혜에 대한 과보

갓 출가한 예비 승려인 사미와 사미니들이 받는 열 가지 계율 가운데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는 '불비시식(不非時食)'이라는 것이 있다. 음식 먹을 때가 아니면 수행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절집에서 흔히 말하는 '오후불식(午後不食)'이 바로 이것이다.

천인(天人)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짐승은 오후에 먹으며 귀신은 야밤에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점심때 한 끼 공양만 하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오후가 되면 음식물을 먹지 않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불비시식'이란 계율이 생겼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처럼 어린 사미승이나 몸이 약하고 병이 있는 비구는 오후에도 음식물을 먹어야만 했다. 이런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 옛 스님들은 지혜롭게 방편을 베풀어 저녁밥을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오후의 음식은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쇠약한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도 부처님 법에는 어긋나는 줄 알아 약석을 받게 되는 스님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

부처님의 율법에 비구로서의 삶은 가사와 장삼과 옷 세 벌에 만족하고, 아침에 죽 한 그릇 낮에 밥 한 그릇 두 끼니만 먹게 되어 있다. 때가 아니면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절집의 법도인데, 먹을 것을 아무 때나 찾아 먹고 좋은 옷만 골라 입는다면 뒷날 그 과보를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선가귀감> 63장에서 말한다.

故曰 要識披毛戴角底麼. 卽今虛受信施者是. 有人 未飢而食 未寒而衣 是誠何心哉. 都不思 目前之樂 便是身後之苦也.

그러므로 말하기를 "털을 덮어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있는 소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신도들의 시물(施物)을 헛되이 받아쓰는 수행자의 뒷날 모습이다"라고 한 것이다. 어떤 수행자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고 춥지 않아도 옷을 더 껴입기만 하니, 참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고? 눈앞의 쾌락이 바로 뒷날의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는구나.

법창(法昌) 선사는 <치문경훈>에서 이르기를 "그대는 털을 뒤집어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있는 소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평소 남을 제멋대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그 과보로 받을 다음 생의 모습이니라. 그대는 혀를 뽑아내는 발설지옥(拔舌地獄)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중생들을 속이고 나쁜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 과보로 받을 지옥의 모습이니라. 살이 터서 쩍쩍 갈라지는 차가운 얼음 지옥과 모든 것이 푹 삶아지는 펄펄 끓는 가마솥 지옥에 대하여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신도들의 시물을 함부로 받아썼던 사람들이 다음 생에 그 과보로 받을 지옥의 모습이니라[爾要識披毛戴角底麼 便是爾尋常亂作主宰者是 爾要識拔舌地獄底麼 便是 訛惑迷途者是 爾要識寒氷鑊湯底麼 便是爾濫膺信施者是]" 하였다.

자수(慈受) 선사도 <치문경훈>에서 이르기를 "배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고 춥지 않은데도 옷을 더 껴입는구나. 때가 몸에 끼지 않았는데도 목욕을 하고 피곤하지 않은데도 잠을 자는구나. 도에 대한 안목이 밝지 않아 번뇌를 다 없애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신도의 시주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未飢而食 未寒而衣 未垢而浴 未困而眠 道眼未明 心漏未盡 如何消得]"라고 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智論 一道人 五粒粟으로 受牛身하여, 生償筋骨하고 死還皮肉이라 하니 虛受信施라 報應이 如響하니라.

<지론>에서 "옛날 어떤 수행자가 곡식 다섯 알을 무심코 땅에 버려 그 과보로 소의 몸을 받아서는 살아생전에 뼈빠지도록 일해 주었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으로 그 빚을 갚았다"고 하였으니, 신도들의 정성스런 시물(施物)을 헛되이 받는 과보는 메아리의 울림처럼 분명할 것이니라.

<지론>은 인도의 용수 보살이 지은 <대지도론>의 준말이다. <대품반야경>을 해석한 것인데 구마라집이 번역하였다. <중론> 등 용수의 논저가 대부분 '공(空)'의 입장에서 정리된 것인데 반하여 이 저서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보살이 갖추어야 할 실천적인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화엄종과 천태종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대지도론>에서 나오는 교범발제(憍梵鉢提) 비구의 이야기를 서산 스님은 하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 교범발제는 비구로서 아주 오랜 과거세에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몇 알 따서 잘 익었는가를 알아보고는 그냥 땅에 버린 적이 있었다. 그 과보로 전생에 소로 태어나 밭의 주인인 농부의 집에서 살아서는 일을 하고 죽어서는 고기로 그 빚을 갚았다. 교범발제는 전생에 소로 살아서 전생의 버릇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소처럼 항상 먹은 음식을 토해 올려 되새김질을 하였다고 한다. 작은 일의 인과응보(因果應報)도 이처럼 어김이 없으니, 신도들의 정성스러운 시물(施物)을 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헛되이 받아쓰는 일은 뒷날 참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무소유>의 저자로 유명하신 법정 스님께서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세상에 공것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공것이라면 우주질서인 인과관계(因果關係)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가장 큰 폐단은 놀고 먹는 풍조에 있다. 놀아도 세 끼 밥을, 잠을 자도 세 끼 밥을 거저먹는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처럼 불합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세 끼 밥을 못 먹어서 갖은 비극이 범람하는데 승가에서는 오히려 제때에 먹지 않는다고 걱정을 한다. 이와 같은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종단에 종교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승가의 '백장청규(百丈淸規)' 정신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자 생활태도이다"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청규로 유명한 백장 스님은 나이가 들었어도 쉬지 않고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노스님이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 하루는 일하는 연장을 감추었더니, 그 날은 굶었다고 한다. 맑고 깨끗한 수행자라면 시물(施物)을 두려워하고 백장청규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곧은 수행자로서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시물 헛되이 쓰는 과보 메아리 울림처럼 분명
수행자는 백장청규 정신이어 본분 잊지 말아야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천도재(薦度齋)

식목일에 서울대공원에서는 죽은 동물을 위한 천도재(薦度齋)가 열린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이다.

흔히 천도재의 '천'자에 얽매어 관념적으로 하늘로 보내는 의식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천도재는 살아생전 지은 죄업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씻는 작업이다. 옮길 천(遷) 법도 도(度) 재계할 재(齋) 즉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영가의 죄를 씻어 극락왕생과 보다 낳은 세계로 환생하기를 기원하며 길을 안내하는 의식이 천도재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49재. 스님을 모시고 극락왕생하도록 시달림을 하는데 49일 동안 일곱 번의 천도재로 시행하는 것이다. 흔히 49재로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는 재례는 이러한 천도재의 가장 기본이다. 49재를 중요시하는 것은 명부시왕 중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천도재에는 49재외에도 100일재 · 소상 · 대상 등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매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왕으로부터 한 번씩 심판을 받는다.

의식절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와 각배재(各拜齋) · 영산재(靈山齋)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주권공재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며, 여기에 명부신앙에 대한 의례를 더한 것이 각배재이고 번화신앙을 가미한 것이 영산재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5>



문제 해결의 방법

인간의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심리학의 각 조류별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상담심리 기법이 모두 4백여 가지나 된다는 말도 있다. 이만큼 많은 기법 가운데 이제까지 주로 살펴본 세 가지 큰 세력별로 주로 쓰이는 기법을 살펴보고 불교와 비교해 본다.

정신분석에서는 자유연상을 통해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해 나간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석도 주요 기법이다. 분석 과정에서 저항, 전이, 그리고 꿈 등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재료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한다.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도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다. 주장 훈련, 단계적 둔감화, 결과 직면 과민성 제거법, 정서적 심상법, 부정적 연습, 심적 포화, 혐오기술, 혐오기술, 토큰 경제 체계의 활용, 조형, 모델링, 역할연기, 행동 연습, 자기 지시, 사고 중지, 행동계약, 인지적 행동 수정, 자기 지도 등이 모두 행동주의적 상담 기법이다.

인간중심적 접근에서는 상담의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와 철학을 더 중요시한다. 인간중심 상담의 창시자 로저스는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고 둘째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셋째는 정확한 공감적 이해다. 즉 인간중심적 접근에서 말하는 상담 기법이란 상담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자가 이 인간중심적 상담자의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타 이론과 기법을 적용해 쓰고 있다.

불교에서 보자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란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道聖諦)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모두 37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이라 한다. 사념처(四念處), 사정단(四正斷),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분(七覺分), 팔정도(八正道)가 그것으로서, 이 7과(科)의 집계가 삼십칠도품이다. 이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여 불교의 지고의 목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실천도이다. 부처님이 초기에는 실천 수도법으로 오직 팔정도만을 설하다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점차 여러 가지 수도법을 설하여 삼십칠도품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부처님은 삼십칠도품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인간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각각의 경우에 알맞은 절묘한 해결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부처님의 교화 기법, 상담 기법을 통틀어 '방편시설'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상담 기법 보다 상담자 태도와 철학이 더 중요
부처님은 삼십칠도품 통한 절묘한 해결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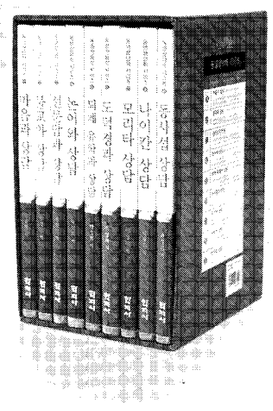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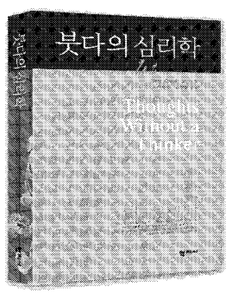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섭 상담

박성희 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 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저 | 전현수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의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나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피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들과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당신의 지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의학프로그램
치매예방과 뇌 장수법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504면

과거를 넘어 미래를 여는 NLP의 새로운 접근
시간선 치료
설기문 저 | 신국판 | 248면

신념을 바꾸면 능력과 운명이 바뀐다
NLP 기본법칙을 통한
신념의 기적
로버트 딜츠 외 공저 | 전경숙 외 공역 | 신국판 | 328면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 신국판 | 384/352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조옥경 외 공역 | 국배변형판 | 252면

세 살부터 여든까지, 두뇌를 깨우는 140가지 비결
두뇌계발비결
리처드 레비톤 공저 | 김충석 역 | 신국판 | 528면

상담자의 책무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안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본기법
김창대 역 | 크라운판 | 352면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지사 TEL (02)326-1500 FAX (02)324-2345


명선 스님 (흥국사 회주)

선지식을 찾아서 명선

흰 천과 같이 모든 것 포용할 줄 알아야



명선 스님은 1953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득도, 58년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59년 합천 해인사 2차 불교전문대학 대교과 졸업.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통도사, 관음사, 도리사, 범어사, 보광사 등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제3대에서 9대까지 종앙종회의원 및 중앙종회 재정분과 위원장을 지냈으며,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을 역임했다. 81년 세계 승려대회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상운사, 화엄사 주지를 역임했고 85년부터 여수 흥국사 회주를 맡고 있다.

흥국사의 색 바랜 대웅전 단청이 눈에 들어온다. 화려함에 익숙해진 눈이라 그런지 색깔 없는 단청에 왠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다. 화려하기는 쉽되 소박하기는 더 어렵고 소박한 속에 지나가는 색향을 머금기가 더 어렵다고 했던가.

명선 스님은 칠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지월 스님의 배려로 학인들도 결제 때 용맹정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능엄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봐도 잘 몰라 애를 먹었지요. 그런데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화두가 잘 들리고, 배우지도 않은 <능엄경> 부분이 그저 눈앞에서 술술 읽혀지고 그래요. 용맹정진이 끝나고 나면 그 공부가 남아있지 않는데, 그것이 환(幻)인 거라. 참선할 때 자신이 부처를 그리고 있으면 부처가, 조사스님을 생각하면 조사스님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이것이 환인 것을 알아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제 스님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치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친다고 한 것은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명선 스님은 십수 년의 세월을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통도사, 관음사, 도리사, 범어사, 보광사의 선방에서 보냈다. 평생을 선승으로 살아온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서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지 여쭈었다.

"정진만 잘 하면 육바라밀이 저절로 됩니다. 지월 스님은 도를 닦는 사람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손님으로 갈 때 그 마음을 유지하라' 고 하였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촌음을 아껴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옛 선사들은 해가 지면 벌써 하루해가 졌다면서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금생에 도를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지 모르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아직껏 품고 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조석으로 예불 올리는 것도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나태는 내리막길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예불을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빠지게 됩니다. 재가자로서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의식을 걱정하여야 합니다. 또 출가자로서 게으름을 피우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온갖 일은 정진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명선 스님은 새벽 3시에 예불을 올리고 예불 후 아침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날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 것은 스님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아랫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흥국사에서는 공양시간을 놓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양을 주지 않는다. 여러 대중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아야만 절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단다.

스님은 정진만 잘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였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분별심을 요구하지 않는가 싶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무언가를 분별하고 차별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다면 그 해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 나태는 내리막길
> 온갖 일 정진해야
> 집착없다는 것은
> 당처에 열심히 사는 것

"분별심을 내면 끝이 없고 분별심을 내는 사람만 괴롭습니다. 조사스님들은 24시간 일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함이 없다고 합니다. 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소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요? 해제를 하면 스님들이 결망을 메고 만행을 합니다. 만행은 자기가 수레를 때리고 있는지 소를 재촉하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또 다른 공부입니다.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자기 마음이 그것에 끄달리거나 착심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지요. 집착함이 없다는 것은 당처에서 만족하고 당처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입차문래 막존지혜(入此門來 莫存知慧)'라, 이 문에 들어 올 때는 알음알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흰 천과 같습니다. 흰 천에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괴색인데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을 취하면 나쁜 사람과는 적이 되어 버리고, 나쁜 사람을 취하면 좋은 사람은 적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 좋고 나쁜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유도 포용하고 무도 포용하는 것이 중도인데, 중도 속에 모든 불법이 있고 선(禪)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날카롭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어요."

명선 스님은 요즈음 경허 선사의 상좌인 수월 스님의 평전(評傳)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만주로 건너간 뒤 열반에 들 때까지 동포들과 독립군을 위해 무주상보시를 베풀었던 수월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만주일대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다. 수월 스님 영정을 그리기 위하여 초상화가를 데리고 수월 스님과 인연있는 박노인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지금 명선 스님 처소에는 수덕사에 모셔질 수월 스님의 영정 2점이 있다.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걸망 하나 메고 물같이 바람같이 떠돌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수월 스님의 일생이야말로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한단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기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명선 스님의 바람이다.

세상사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라고 한다. 스님 처소 앞에는 가지가 무겁도록 꽃을 피우고 있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매화나무는 한겨울의 추위를 오롯이 견디어 내면서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열망하였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주의 기운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했던가. 깨달음도 열망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 그렇다면 우리네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한 일이다.

참선을 해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라는 명선 스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걸어 둘거나.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 × 30Cm
2 돈타레 5.6φ × 27Cm
5 약쑥향 1호 5.9φ × 20Cm
6 약쑥향 3호 4.7φ × 13Cm
7 약쑥향 4호 4.7φ × 10Cm
8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7)

묻되, 소가 되는 이치가 뭔데?
답하되, 콧구멍 뚫을 데가 없으면 된다

1879년 11월, 경허 스님이 동학사 조실 방에서 '여사미거 마사도래(驢事未去 馬事到來: 나귀의 일도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한지 석 달이 지났다. 동짓달 보름께였다. 그때 동은(東隱)이라는 사미승이 스님의 시봉을 들고 있었다.

어느 날, 만화 스님의 제자이자 경허 스님의 사형인 학명(學明) 스님이 동은의 부친인 이 처사를 찾아갔다. 학명 스님을 보고 이 처사가 물었다.

"요새 동욱(경허) 대사는 뭘 하나?"

"그저 방안에서 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중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는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으면 되는 게지."

동학사로 돌아 온 학명 스님은 그 이야기를 동은 사미승에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너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은 동은 사미승은 경허 스님이 참선하는 바로 옆방에서 다른 사미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물었다.

"너네들, 중노릇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치를 아니?"

"글쎄, 그게 뭘까?"

"야, 소가 돼도 콧구멍 뚫을 데가 없으면 된단 말야."

동은 사미승은 커다랗게 말했다.

어린 사미승의 그 말이 참선중인 경허 스님의 뒤통수를 '꽝'하고 때렸다. 대지가 그냥 내려앉았으며, 만물과 자신을 함께 잊고 온갖 법문의 끝없는 오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 녹듯 풀렸다.(경허집)

경허 스님이 '여사미거 마사도래' 화두를 타파한 기연이다. '여사미거 마사도래' 화두는 중국 위앙종의 영운지근(靈雲志勤 · 771~853) 선사에게서 비롯됐다. 어느 때 한 수좌가 영운 선사에게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나귀의 일도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고 대답한 공안이다.

경허 스님이 '콧구멍 뚫을 데가 없다(無穿鼻孔處)'는 말에 이 공안을 타파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콧구멍 없는 소'가 '불법의 대의'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뜻일까.

원래 '콧구멍(鼻孔)'이란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간직한 불성(佛性)의 기미를 의미한다. 중국 법안종의 종주 법안(法眼) 선사의 어록에 '콧구멍 없는 소(牛無鼻孔處)'라는 표현이 실려 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날 때 코가 먼저 생기며, 오관 중에서도 콧구멍이 먼저 뚫린다고 본 데서 '콧구멍'은 불성, 본분(本分), 본각(本覺)에 비유되었다. 때문에 해탈한 모습을 '콧구멍이 아주 누긋해졌다(鼻孔累垂)'고도 표현했다. 즉 콧구멍이 인간이 본래 지닌 불성을 뜻한다면, '콧구멍 뚫을 데가 없는 소'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해석일 따름이다.

콧구멍은 불성 · 본각의 의미
새삼 깨달을 진리 따로 없어
경허 스님에 오도 제공한 문답

토굴의 꽉 막힌 벽처럼 그를 가두었던 미망의 그물이 산산조각 나면서 경허 스님은 이제 당나귀와 말의 일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된 것이다. 고삐를 꼴 콧구멍이 없는 소는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다. 그 자신이 바로 바로 자유와 해탈 자체인 것이다. 경허 스님이 절집의 관례를 깨고 스스로 법명을 '깨달은 소', 즉 성우(惺牛)라고 지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염라대왕이 밥값 달라면…그때 후회할건가?

봉은사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 5백여 불자 '禪바람' 향긋~

"형상의 부처에게 절하지 말고 마음부처에게 절하세요. 자기 마음과 더불어 생불이자 활불, 본래불, 미래불인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맞절하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오후 7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문을 연 '월암 스님의 간화정로(看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주제의 법회에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백여 대중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서울 불자들을 대상으로 첫 법문에 나선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은 "선(禪)은 지금 여기,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이 '실체가 없음(空)'을 직하(直下)에 요달(了達)해, 고통을 행복으로 돌려쓰는 깨어있고 열려있는 삶 자체"라며 대중들의 정진을 촉구했다. 법문 중간 중간에 실생활 속의 선수행을 언급하며 본래부처(本覺)로서 부처행(佛行)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대목에서는 신도들이 박수를 치거나 웃음으로 화답한다.


월암 스님의 강의 장면.

 # 선종 수사찰의 수행 열기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한 복판에서 열린 선법회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법문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것은 이례적인 광경이다. 서울 강남에서도 선(禪) 바람이 불었다고나 할까. 여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수좌 출신의 명진 스님이 새 주지로 부임하면서 '선종 수(首)사찰' 봉은사에 수행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수행 · 휴식 도량을 가꾸기 위한 주지스님의 중창불사 1000일기도 중 107일째를 맞은 가운데, 월암 스님이 지난해 9월 8~18일 지리산 벽송사에서 복원한 선회(禪會)를 봉은사에서 다시 열면서 선풍(禪風)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선회는 선교겸수(禪敎兼修)와 참선의 생활화를 위한 월암 스님의 원력을 실감한 자리였다. 석 달 간의 겨울안거를 마치고 나온 수행자가 당신의 정진에서 얻은 힘을 나눠주기라도 하려는 듯 '뜬 구름 잡는 선이 아닌 자심(自心)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선'을 힘차게 역설했다.

"한 생각(一念) 일어나면 생(生)이요, 한 생각 멸하면 사(死)이니 일념생사요 일념윤회인 것입니다. 하루 낮 · 밤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난다는 '일일일야 만사만생(一日一夜 萬死萬生)'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찰나지간에 생사윤회가 일어나기에, 선은 일념해탈을 강조합니다."

선이란 삶을 떠날 수 없고, '한 생각(一念)'을 떠나 말할 수 없기에, 한 생각 일어나는 즉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곧 한 생각 일으킬 때 번뇌 ·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일념해탈'과 '일념성불'을 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념윤회에 너무나도 익숙한 프로들이다. 한 마디 좋거나 나쁜 말에 잘도 웃고 잘도 운다.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때문에 임제 스님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되라(隨處作主 立處皆眞)" 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일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이 '일념해탈'의 도리인 것이다.

 #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다

사람은 본래부터 성불해 있어서 본각이지만, 무명으로 인해 경계에 끄달리는 불각(不覺)의 삶을 살고 있다. 중생이 불각에서 본각을 회복하기 위해 일심을 닦는 것이 수행이다. 하지만 선은 방편을 거치지 않고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을 강조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인심(人心)이 곧 불심(佛心)이라 말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삼계는 오직 일심이니, 마음 밖에 별다른 법이 없다. 마음, 부처, 중생이 일심으로 평등하다(三界唯一心 心外無別法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설한 것도 이와 같다. 마조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즉심시불(卽心是佛)'을 말했고, 임제 스님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는 '즉인즉불(卽人卽佛)'을 설했다.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깨닫는 것이 참선이요, 마음이 본래 없는데 마음으로 마음을 닦는 것이 참선인 것이다.

월암 스님은 "법당의 등상불에게는 정성껏 절하면서 본래불, 미래불인 살아있는 부처에게는 시기, 질투를 쉬지 않으니 이는 불공을 잘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육조단경>에서는 "내 마음이 밝으면 부처님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마음 씀씀이(用心)'가 바늘 구멍만해서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서산 대사는 '천계만사량(千計萬思量)이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이라' 했다. 천 가지 계교와 만 가지 사량분별이 붉은 화로 위의 한 점 눈과 같다는 것이다. 평생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결국, 마음공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임을 스님은 이렇게 표현했다.

"염라대왕이 밥값 계산하는 것은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갑자기 염라대왕을 만나 혼비백산 하지 말고 태평한 시절에 이 일념, 일심, 한 물건(一物)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뭣고? 하는 화두를 챙겨야 합니다. 참선은 일심, 한 물건을 찾는 피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 단비같은 심지법문에 매료

선은 딱딱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숨 쉬고 내뱉는 일념지간에 안심입명(安心立命)하는 것이다. 일념 사이에 고통이냐 행복이냐, 생사냐 해탈이냐를 다투는 문제이다. 오욕락에 허우적대다가 문밖에서 염라대왕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릴 때 후회하지 말고, 삶이 반환점을 돌아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오직 할 것은 마음공부뿐이라는 것이다.

가지가지의 완곡한 비유와 삶속의 예화를 곁들인 월암 스님의 선법문은 움츠리고 닫혀있던 불자들의 마음에 단비를 뿌려주는 심지법문(心地法門)이었다. 20년간 이곳저곳의 시민선방에서 참선했다는 보정(51 · 개포동) 보살은 "수행자인 대승보살은 언젠가는 본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법문에 환희심이 났다"면서 "번뇌 · 망념을 버리고 진여 본심으로 돌아가(捨妄歸眞) 본래부처로 부처행하며 사는 것이 참선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회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총 9회 동안 진행된다. (02)511-6070

김성우 객원기자

수 행 게 시 판

현정선원 일불승 공부
서울 현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에 정기법회를 연다.
현정선원 대우 거사의 법문을 통해 곧장 자기의 마음을 밝힘으로써 곧바로 나(我) 없고, 함이 없는(無爲) 자리로 직입하는 조사선의 일불승(一佛乘) 도리를 체득하도록 한다. (02)582-9371

강진 백련사 무문관 체험
전남 강진 백련사는 해제기간 동안 무문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행기간은 1박2일, 2박3일, 4박5일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 5명까지 입방할 수 있다.
1인 1실에서 절대 묵언하며 참선위주의 수행체험을 하게 된다. 마감은 5월 6일이며 선착순 모집. (061)432-0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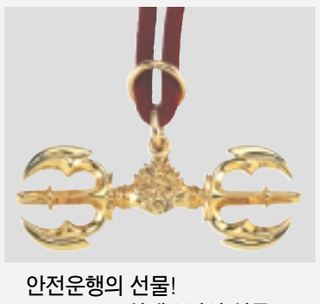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 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새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세요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최고



수맥파가 각종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속속 밝혀지고 조상의 산소 밑에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면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간신문 특집씨리즈를 본 불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에도 우리집 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조상 산소밑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수맥감정문의가 신문사에 줄을 잇고있다.
그러나 국내에 수맥과 수맥파를 정확히 찾아내는 인사는 스님몇분과 몇분의 신부 그리고 일반인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대학에 수맥감정학과가 있고 수맥감정사무소와 수맥감정법인까지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2002년 암환자 30명에 대한 가정 수맥파 감정을 실시한 결과 29명의 가정에서 강력한 수맥이 흐르고있어 수맥파가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암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암뿐아니라 각종 중증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발표는 영국과 프랑스등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스님들께서 절이나 산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낼 수 있다. 그림1과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 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 되지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 7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⑨ 혼자 있을때 누구를 바라보나?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지 않으세요?"

정년퇴직 후 외로움 실감…아내와의 '먼 거리' 도 고통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최선 다하라

혼자 있는 외로움

"정말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내는 이제 같이 지내려 하지 않고….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정년퇴임한 K교수의 말이다. 퇴임 후 K교수는 거의 매일 집에 있게 되었다. 스스로는 계속 책도 읽고 공부도 하려 하지만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다. 우선 세 끼 식사를 집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연히 부인이 종일 식사도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다. 부인은 아침부터 지역 봉사 모임이나 다른 일이 있다고 나가곤 했다. 음식준비는 부인이 해 놓지만 혼자 밥을 차려서 먹고 있자니 솔직히 외롭고 서글픈 마음이 되었다.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어느 날 부인에게 불평을 해 보았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 마치 나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당신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지내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나 위주로 산 시간

사실이었다. K교수는 평생 재직하는 동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강의와 논문쓰기, 연구에 바빴고 무엇보다 항상 주위에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에도 학교에 가거나 모임, 행사에 참석하곤 해서 부인이나 자녀들과는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다. 부인이 가끔 외롭다고 이야기하면 "이 바쁜 생활에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봐. 봉사라도 하든지" 하고 면박까지 주었다. 부인과 깊은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다.

이제는 부인이 필요했다. 퇴임 했더니 할 일도 없고 어딜 가도 예전처럼 반기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수십 년간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가 비로소 집에만 있는 심정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는 부인이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남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지 오래이며, 봉사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밀하게 되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자업자득이네요. 이렇게 늦게 외롭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아내와 대화도 좀 더하고 화기애애하게 지냈을 텐데" 하며 한탄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가끔 절에 다니던 교수는 불법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본 적이 없었다. 들은 대로 조금씩 해 보기는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부인과의 마음이 멀어져 있었음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늦기 전에 사랑합시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나에 집착하지 않는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바로 대승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실천이 중요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온 습관과 아상을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만 생각하기도 힘들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 때 남들도 생각해 보자, 대화할 시간을 내보자. 내일, 내년에 하지 뭐, 노후에 하지. 그 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사과해야지, 용서해 주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지. 그러나 그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일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은 결국 외로움을 가져오고 만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이기심을 돌아보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 배려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 봅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여성리더십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은 제3회 조화로운 세상을 여는 여성 리더십 교육을 4월 11일 개강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여성 리더십 교육은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조계사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02)722-2101

송림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칠곡 송림사는 불교대학 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4월 4일 개강하는 송림사 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주간반), 저녁 7~9시(야간반)에 불교기초교리 강좌가 열린다. (054)976-8116

저소득 가정 청소년 희망공부방 개설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강남구 내 무허가 집단거주지역(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 희망공부방을 개설한다. 매주 월수금 오후 7~9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열리며 국어 영어 수학 집단활동 야외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02)571-2988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 '제4기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4월 11일~7월 1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고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화두 참선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한다. 선착순 42명, 참가비 20만원. (02)735-2428

대전약사불자회 창립법회
대전지역 불자 약사 40여명이 대전 만불선원에서 대전약사불자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4월 15일 오후 5시 만불선원에서 열리는 창립법회에서 불자 약사들은 자원봉사 활동 계획 등을 천명할 예정이다. (042)257-0281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상 여행의 행복 (상)

아일다 서울 마포구

공항 가는 길에 눈이 오고 있었다. 봄에 눈이라….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눈발이 휘날렸다. 구름 사이 푸른 하늘로 햇살이 내비치고 있는데…. 축복받은 여행의 조짐을 알리는 하늘에서 뿌려주는 꽃눈이라 상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공항에 집합해서 느낌노트와 틱낫한 스님의 책 '기도'를 받았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내가 웃으니 꽃이 피네요"라고 하시며 "자신의 틀을 넓히는 만큼 행복해지고 성숙되는 것"이라는 마가 스님의 법문으로 명상여행이 시작되었다.

출국 수속을 밟고 25번 게이트에 모였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우리는 마음을 열어갔다. 대기실에서 그대로 앉아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자기 머리, 뺨, 팔 등을 만지면서 손에 닿는 다른 감촉들을 느껴보며 그 다름을 알아차리는 감각으로 걷기명상을 했다.


그림: 문병성

'내가 웃으니 꽃이 피네요' 주제로 캄보디아서 열리는 수행에 동참

대기실은 넓고 길어서 걷기명상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곳곳에서 내딛는 고요한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의 여정을 곱게 수놓아가기 시작했다. 여행으로 들뜨고 흥분된 기분대신 잔잔한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약 6시간이 걸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도착했다. 숙소에 도착하자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일층 식당홀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며 잠시 명상을 배웠다. 다음날 아침에 발표할 숙제도 받았다. 나의 장점 15가지 쓰기였다.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방에 들어서니 풍성한 과일바구니가 반기고 있었고 낯선 여행지의 첫날밤이라 즐거움으로 피로한 줄 모르고 방짝 보살님과 열대 과일을 맛보며 담소를 나눴다.

귀여운 새소리에 잠을 깨어 아침공양을 마치고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왔다. 시간이 있어 정혜심 보살님과 호텔 주변을 산책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이 산들거리고 있었다.

순례를 나서기 전 호텔 로비에서 장성호 거사님의 나의 장점 15가지를 듣고 세 분의 강원 비구니 스님과 선방스님 한 분께서 <자비경>을 노래로 지어 불러 주셨다.

스님께 이런 표현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하시는 네 분의 비구니 스님은 너무 순수하고 사랑스러우신 모습이어서 달려가 꼬옥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왕궁과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기위해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은 대사관과 호텔을 제외하고는 많이 낙후된 모습이었다. 그와는 달리 왕궁과 박물관은 한때 번영했던 문화와 세력의 유물들이 고스란히 잘 보존되고 있어 그 화려함이 캄보디아 서민의 삶과 대조적이었다.

씨엠립으로 떠나기 전 점심공양을 들었다.

공양을 하기에 앞서 식사명상을 배웠다. 눈을 감고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어떤 맛을 느끼며 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는 어떻게 음식물을 씹는지 잘 살펴보라고 마가 스님께서 일러주셨다. 주의를 기울여 식사를 하니 음식이 더 달고 맛있었다. 거기에 간간히 담소하는 공양시간은 화기애애했다.

공양이 끝나고 각지에서 혼자 오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여연심 보살님, 서울에서 오신 전법심 보살님, 괴산에서 오신 모계수 보살님, 울산에서 오신 장순경 보살님. 함께 '만남'을 부르며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서로의 가슴에 물들였다. 다음으로는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다. 네 쌍의 부부가 오셨는데 서로의 장점 다섯 가지를 얘기하며 따뜻이 포옹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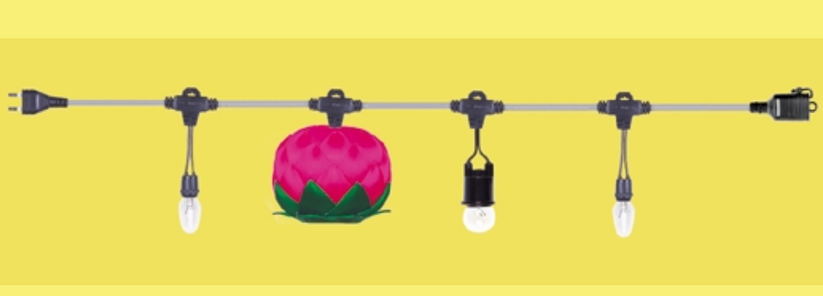
씨엠립에 도착해 톤레삽 호수로 향했다. 우기였으면 물에 잠겼을 흙길을 먼지 풀풀 날리며 한참을 달렸다. 길가에는 가는 나무다리가 받쳐진 엉성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 평 남짓 나무 움막엔 3대가 살고 있는 집도 있었다.

풍요로움과 현대문명의 안락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땐 한없이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소 지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행복지수가 세계10위 안에 든다는 캄보디아….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행복 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우리 국민과 비교가 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찾고 있는데 과연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얻을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수답게 톤레삽은 바다처럼 까마득한 수평선이 있었다. 작은 배를 타고 수상촌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이 베트남의 보트피플이라고 했다. 노 젓는 배를 타고 와서 과일과 음료수를 파는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수상촌에는 학교도 있었고 심지어 배 위에서 돼지도 기르고 있었다. (계속)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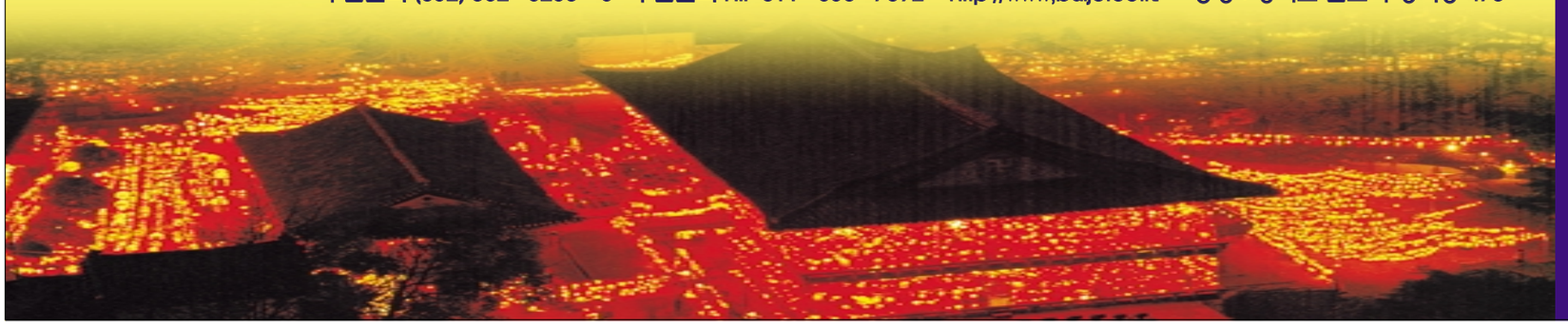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탐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일본인 작가 구마타니의 꽃 그림 유화작품 10~15점과 한국인 작가 최공덕의 꽃모양 가구 6종 12점(화장대, 책꽂이, 의자, 괘짝 등)을 전시하는 한일우호 전시회가 열린다. 무료입장.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4월 9~20일(031)322-8626

여의도 전국경제연합회관에서는

언어교류연구소 히포패밀리 클럽 주최로 다국 간의 상호교류와 다언어의 자연습득에 대한 강연회 '7개 국어를 이야기하는 일상이 있다'가 열린다. 4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81-3-3467-6151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에서는

신명나는 폭소와 애환의 눈물이 서린 '음성 품바축제'가 진행된다. 4월 19일~22일 열리는 행사에서는 가요제 · 꽃잔치는 물론, 품바 분장 · 놀이 체험 등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고추심기, 품바 거리시화전, 솟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043)873-2241

공주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19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중 40명. 기본과목 영어 · 수학 · 논술, 예체능 교육과목 학습은 물론, 급식도 제공한다. (041)852-1318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청소년 건강비법〈상〉-음식

거울아~거울아 어떻게 하면 몸짱 되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 그러려면 건강이 우선이다. 흔히 청소년기 건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성장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평생건강의 관건인 셈이다. 어린이 · 청소년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몸과 마음, 정신이 모두 제대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짜 건강이다. 이번호에서는 그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 알아봤다.







"음식부터 조절하세요."

경현이(서울 중앙중2)는 요즘 공부를 하다 코피를 쏟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3월 26일 엄마와 함께 <먹지마 건강법>의 저자로 유명한 손영기 원장(손영기한의원)을 찾았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보약'이나 '침'을 쓰겠거니 했는데 진맥 후 손 원장은 단호하게 "식생활 패턴 바꾸기가 우선"이라며 '먹지마 건강법'을 권했다. 청소년기의 식생활 하면 누구나 칼슘과 무기질 섭취가 중요하다며 많이 먹으라 하는데, '먹지마'라는 것은 또 뭘까.

식생활 개선이 가장 중요 채식 등으로 몸 균형 찾아야

요즘 청소년들의 몸이 심상치 않다. 대한소아과학회지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 청소년 중 10~15%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적으로 '몸짱' 열풍이 불면서 무조건 다이어트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도 증가 추세다.

손 원장은 몸이 부실한 청소년들에게 "성장기에 특히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기 쉽고 약효과도 반감된다"며 식생활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 먹지마 건강법! '먹지마 건강법'은 간단하다. 인스턴트 음식을 차단하는 것이 전체의 골자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입맛을 당기는 불량식품과 패스트푸드들은 식품첨가물, 식용색소 등의 위험도 있지만 단가가 싼 원료로 만들어 먹을수록 해가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요즘 청소년들이 피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체내 혈액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것과 불량식품 섭취로 인해 장(腸)에 가스가 차는 것입니다."

경현이의 경우도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햄버거, 김밥, 컵라면 등을 먹는 일이 잦았다.

손 원장은 "아이들의 전형적인 식습관 패턴이 입에 맞는 음식만 계속 찾는 것"이라며 점차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쪽으로 습관을 바꾸기를 권한다.

'먹지마'에서는 '설탕' 문제도 중요하게 다룬다. 손 원장의 경우 "설탕, 꿀, 설탕대체감미료 모두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모두 단맛에 중독되도록 하고 혈당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먹었을 때 느끼는 순간적인 이완감 때문에 설탕 중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식품들은 조직 세포를 늘리고 신경을 느슨하게 만든다.

하나 더 챙기자. 몸이 아플 때만큼은 육류 및 유가공품 섭취를 줄인다. 육류와 유제품 자체 성분이 몸 내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 손 원장은 "아플 때 보신하는 것 보다 채식, 소식으로 몸이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런 것은 먹어라! 너무나 당연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 채소, 과일 등은 껍질째 먹어야 한다. 친환경 농법으로 길러낸 채소와 과일을 찾아 먹기 힘들다면 생활협동조합(www.co-op.or.kr)과 같은 친환경 단체를 통하는 것이 좋다.

사실 '먹지마'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단맛'이다. 단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친환경단체에서 만든 엿 · 조청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다. 첨가제 없이 순수곡물로만 만든 엿 · 조청에는 미네랄과 영양소가 살아있다. 그래도 과한 섭취는 금물이다.

또 수시로 배가 고픈 성장기 아이들에게 식욕을 억제하라고만 하는 것은 가혹한 일. 이럴 때는 빵이나 떡보다 콩 · 율무 · 호박씨 · 현미 볶은 것이나 옥수수 · 감자 · 고구마 등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굶지 마라! 아침은 혈당치 유지와 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 바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소화흡수에 좋은 선식 종류를 권한다. 손 원장은 "되도록 몇 가지 곡물로 단조롭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먹지마'라고 해서 '단식'을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여학생들이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섭식 · 식이 ·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극도로 피해야 할 행동이다. 단식 자체가 치료 목적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환자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손 원장은 "'먹지마 건강법'은 간단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다"며 "식욕 억제는 힘들지만 입에 맛있는 음식일수록 자연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한다.

김강진 객원기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고 음식에 신경 쓰세요

-잘 때 식은땀을 흘린다.(부모님이 잘 살펴봐 주세요)
-이유 없이 코피가 난다.
-(특히 영유아, 초등학생)밤에 자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깬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다.
-차분하지 못하고 산만함의 정도가 지나치다.

손영기 원장이 제안하는 이럴 땐 이런 음식으로

□ **피곤할 때** – 모과가 피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모과를 썰어 모과 감미료를 넣지 않고 그 자체만 우려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을 권한다.

□ **여드름이 많을 때** – 어성초 · 뽕잎 등이 좋지만 여드름의 원인이 천차만별이므로 한의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드름의 가장 큰 적은 설탕. 반드시 섭취를 줄여야 한다.

□ **우울하고 화가 자주 날 때** – 대추차가 좋다. 대추차는 예로부터 신경안정제로 쓰였다. 여기에도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말자. 순수 대추만 씨를 빼내고 푹 달여 먹는다.

이제 병풍도 고급 百福圖 명품으로 확 바꾸자!

가정에 하나쯤은 보배로 정통병풍이 있어야 名家집안 소리를 듣습니다.

福字 하나만 받아도 복스럽다는 행운의 복자 百福圖는 福福子를 中國 銀(은)나라 漢字 殷墟文字(언어문자) 원형 甲骨文(갑골문)체로 100개의 복자를 각기 다른 형체로 글자 하나 하나에 혼을 실어 금분으로 써서 열폭의 병풍에 담아 예술로 형상화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작입니다.



2007 丁亥年 돼지해에 삼불사 금강불교문화 연구원장 서예작가 廷潭스님께서 불자님들의 가정에 富貴 번영과 幸福을 祈願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서 50작품 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흑지 위에 금분으로 쓰여진 百福字는 보는 사람과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며 그 신비함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廷潭스님 서예작가 약력

- 2002년 대한민국서화대전(예술의 전당) 최우수상(반야심경)
- 한중수교 12주년 중국산동성 박물관 전시 대상(금강경)
- 2003년 출발 백인전 반야심경, 금강경, 한시, 백복도 전 출품 북경공예미술대학 초대 한중서화 교류전 대상
- 2002년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 하와이 주립대학 초청서예전 미국 하와이 와이키키 아트 갤러리 대상

특히, 첫 작품은 으뜸의 소장가치를 지니는 바, 첫번째 주문하시는 분께는 행운의 증1호로 바로 보급됩니다.

집안에 백복도 병풍을 소장해 두신다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고 千壽(천수)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丁亥年 돼지해에 소중한 분들께 행운의 백복도 병풍으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안겨 드리세요.

부귀, 행복, 희망, 기쁨, 장수 5배의 소장가치가 있습니다.

특별 보급가 : ~~3,900,000원~~ → 1,900,000원

10폭 병풍 (폭 넓이 : 44cm, 한폭세로 높이 : 5자 2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2004-8215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가진 다음부터 비로소 인간이 되었지요.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세상은 언어와 함께 성장한 것이지요. 언어학자 소쉬르는 인간의 세계란 언어에 의해 파악되는 세계라고 여겼지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나고 성격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말을 공부해보기로 해요.

허섭스레기: 좋은 것을 고르고 난 뒤의 허름한 물건. 허섭스레기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태워버리자.

흐드러지다: 1.썩 탐스럽다. 2.아주 잘 익어 무르녹다. 호수공원에 나갔더니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들이 모두 일어나 합창을 하고 있었다.

갈매빛 : 짙은 초록빛. =갈매.
갈맷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박경리, 토지>

갈기 : 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갈기털. 양손으로 재갈과 갈기를 한꺼번에 틀어잡은 채 마 등에 찰싹 달라붙은 김철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추레하다: 1.겉모양이 허술하여 보잘것없다.
2.생생한 기운이 없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죄 통해 용서하는 삶의 방식 일깨워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나다니얼 호손作 '주홍글씨'

인간의 원죄를 나타내는 소설이지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미국낭만주의 대표적소설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요. 주홍글씨의 상징적 의미는 물론 헤스터가 간통죄로 A(Adultery)자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일생을 살게 한 죄의 징벌이나 또한 헤스터가 인간적 성숙을 통해 그 글자를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인간의 죄나 구원,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지요. 여러분은 헤스터처럼 지은 죄가 드러나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간 사람과 딤즈데일 목사처럼 지은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받으며 살아간 사람과 틸링워드처럼 죄지은 사람을 미워하며 산 사람 셋 중에서 가장 고통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간통죄로 A(Adultery)자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붙인 헤스터가 죄의 자식 펄을 안은 채 공개처벌 단상에 서는 대목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간통한 상대의 남자 이름을 대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보스턴 시민에 섞여서 한 노인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던 헤스터의 남편 틸링워드 의사였다. 그는 옥중으로 아내를 방문하여, 상대 남자의 이름을 물어보나 헤스터는 비밀을 지키며 딸 펄을 데리고 삯바느질을 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맞서며 살아간다. 틸링워드는 장본인이 명망 있고 존경받는 청년 목사 딤즈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죄의 고백을 차마하지 못한 채 괴로움에 싸여 초췌해 가는 목사의 주치의가 되어, 가까이서 괴로워하는 목사를 보며, 복수의 쾌감을 맛본다.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로써 사회봉사를 해 나가는 동안 차차 존경을 받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목사는 죄의식의 수렁 속에 빠져 몸부림친다. 7년이 지난 어

청교도 사회 배경의 심리소설
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묘사

느 날 목사는 총독 취임을 맞아 특별 설교를 하여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준 뒤, 스스로 공중 앞에서 자기의 간음죄를 고백하고, 헤스터와 펄에게 안긴 채 숨을 거둔다.

이작품은 17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사회가 배경을 이룬 심리소설로, 호손은 죄 자체보다 불륜이 끝난 다음의 죄의 심리적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지요. 호손이 가장 관심 가졌던 인물은 고뇌와 죄의식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나타낸 딤즈데일이 아닐까요.

헤스터는 다소곳하며 순종적이며 성모마리아를 닮았고 독립적이고 강한 인물이지요. 남편 틸링워드는 학자나 의사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단죄하고픈 복수심에 점차 사악해지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가는 인물이기도 해요 용서하지 못한 죄를 범하나 죽을 때 딸 펄에게 그의 유산을 남기고 죽지요. 펄은 미미한 존재로 혹은 작은 조연으로 나오지만 죄와 구원, 선과 악의 틈에서 아직 선과 악 세계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의 인물이 아닐까요.

그러나 고백하러 올라온 목사에게 키스를 해주기도 하지요.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며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장면이지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묘하게 전복되기도 하는 이 소설은 죄가 각 주인공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묘사한 상징적인 이야기죠. 작가 호손은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의 원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겐 죄 그 자체보다도 예술가로서 죄의식이 인간의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는 가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지요. 틸링워드는 비참하게 죽어가지요. 파멸을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헤스터나 목사는 고백하거나 사랑과 복사와 인내로 구원을 받지만 남편 틸링워드는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살아온 사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한 작가의 의도가 작가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겠지요. 또한 머리는 크나 가슴이 작은 의사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지요. 마음과 머리가 균형이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작가의 말이 들리나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친구 중 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는 '너는 왜 돌이랑 나무에다 절을 하냐'고 막 뭐라 그래요.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ID:인천소녀)

운산 스님의 말씀

친구들의 행복 빌어주세요

스님도 학생시절, 그저 불교가 좋아 절에 다녔어요. 하지만 다니던 절에는 학생회가 없었고, 그렇다고 일부러 먼 절까지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부터 제 주변에는 절 보다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는 '종교의 나라'라고 할 만큼이나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당시에도 다른 종교인과 불교인이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지 하는 문제가 참 중요했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른 종교인들이 나쁜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를 설득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독이 든 음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신지라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차분하게 용서하시지요.
오늘 부처님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신다면 "내 말만 들어. 저 쪽 이야기는 듣지 마!" 그러실까요? 아마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시겠지요. 그리고는 서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해주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지요?
(서울 옥천암 청소년 지도법사)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최고의 선물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정승복 064)724-7999

新 초판 매진 감사합니다.
보다 완성도를 높인
『補正版 발매개시』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생케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러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 입 문 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 총 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 353-6142
010-2356-6142

"난 운 좋은 수행자, 선지식 두루 뵈었으니…"

대현 스님 수행기 '선승의 길'…운수납자의 구도행 생생히 들려줘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책이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기록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에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만다. 서울 보광사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사진)의 <선승의 길>은 두고두고 전해져야 할 가치 있는 기록이다. 한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 온 운수납자가 예순이란 세월의 고갯길에서 지나 온 길을 되돌아 본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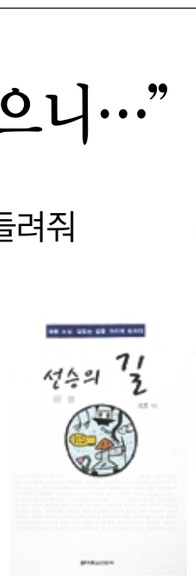
정작 대현 스님은 "중은 흔적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떠나는 것이 미덕인데 구린내를 풍기게 되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첫 장에 눈이 가면 끝까지 무엇에 홀린 듯 읽게 되는 마력(?)이 있다. 결코 구린내가 아니라 선승의 간절하고 활발한 구도행각에서 풍기는 향기가 가슴을 가득 채워 준다.

대현 스님이 아스라이 되돌아 본 수행 여정은 선친의 유고(遺稿)들을 읽기 위해 한문 공부 할 곳을 찾다가 절에 들어간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한문 공부를 목적으로 절에 들어 갔으니 경전을 공부해 강백이 될 확률이 많았지만 행자시절부터 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리산 불일암에서 49일간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기도를 한 뒤부터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좋은 도량과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현 스님은 "난 참 운이 좋은 수행자야. 그래도 당대의 큰 선지식들을 두루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라며 전강 혜암 월산 송담 경봉 성찬 향곡 스님 등에게 점검 받은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 놓는다.

자상한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 놓는 대현 스님의 이야기는 수좌들의 선원 생활이 눈에 그려지는 듯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수행자가 지녀야 할 덕목들과 금기해야 할 사항들도 선지식들의 입을 빌어 고구정녕하게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지식들을 참방하여 도를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흥미진진하다. 월산 스님 앞에서 "봄 꿩은 자기 울음에 자기가 죽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전강 스님과 송담 스님에게 거듭거듭 법을 묻던 일, 성찬 스님과의 '비파줄' 법거량 등은 우리시대의 선어록이다.

참선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대로 배울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대현 스님은 평생 참선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십우도'를 스님의 독특한 견해로 풀었다. '십우도'를 화두 공부가 깊어지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대현 스님의 견해다.

"혹자는 소를 자성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무구하여 마니보주와 마찬가지로 거름무더기에 싸여 있다고 더럽혀지는 법이 없고 맑은 물로 씻는다고 하여 더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는 화두공부를 지어가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본다."



선승의 길
대현 스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1만 2000원

책의 뒷부분에서는 유식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좌만의 독특한 안목이 '마음'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대현 스님은 "묵조선과 화두선의 관계를 밝히고 선의 역사적 사상적의 흐름을 새롭게 짚어 보는 글을 쓸 작정"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문화인'의 기슴에 새긴 절과 추억 그리고…



내마음에 남은 절
강석경 외 51명 지음
김성철 사진
산처럼 | 1만2800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종교와 상관없이 관광지 옆 절을 한번쯤 스쳐지나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절은 어떤 의미일까. 고즈넉함, 아름다운, 단아함, 소박함… 등. 사람의 성격이나 종교 관심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문화계 인사들은 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책은 강석경, 송영방, 이호신, 최완수 등 52명의 국내 대표적 문화 인사들이, 삶의 어느 한 순간이나 일정 시기 겪었던 절과의 인연을 소개한다. 절에 머물렀던 당시 각자의 마음속에 그려진 모습들을 글에 담아 사진과 함께 엮었다.

소설가 한승원 씨는 문학에 심취하게 된 열아홉살에 전남 장흥 천관사를 찾아갔다. 열정은 넘치지만 스스로의 재능에 절망하던 그가 찾은 천관사에는 텅빈 가슴 속을 더욱더 허전하게 흔들어 대는 바람만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 씨는 그 바람소리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머무르고 있다고 회고 한다. 그가 대표작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쓴 것도, 부처님 앞에서 혼례식을 올린 것도 다 그 바람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이 책은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절,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절, 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하여 기억되는 절 등 여덟 가지 주제에 따라 본문을 나누었다. 또한 각 절의 소재지, 창건시기와 창건자, 그리고 역사와 문화,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지도 등을 부록에 따로 정리해 실어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김주일 기자

'고통'은 불교와 심리치료의 출발점

"불교와 심리치료의 출발점은 인간의 고통이다. 또한 모든 심리치료자들이 비록 같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모두 같은 치료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데 이것은 치료자의 능력과 인격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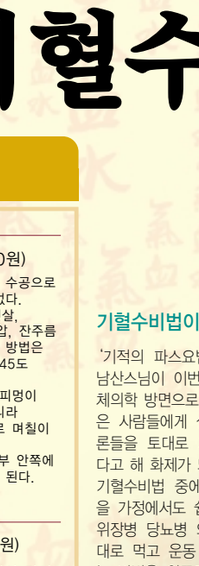
"마음챙김 명상은 다양한 심리치유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의 치료 효능은 명상수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유도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지난해 9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불교와 심리'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 자리에는 불교학, 상담심리학, 요가학계의 중견학자와 정신과 의사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과 발표를 했다. 이 내용들을 주최측인 '불교와심리연구원'이 학술지 성격의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 <불교와 심리>다.

즉 이 책은 창간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목할 만한 새 주장들이 가득하다. 가령 '불교는 고집멸도 사성제의 체계로 제시되며,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접근법은 심리치료와 유사하다' '불교는 자기 치유를 통해 심리치료에 대한 부적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등등. 얼핏 책을 들춰보면 딱딱한 논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들을 차근차근 곱씹어보면 복잡해진 심신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불교심리치료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와 심리
권석만 외 8명 지음
불교와 심리연구원
1만2000원

"깨어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있다. 지금없는 것도 없다. 지금 없는 것에 사로잡히면 지금 있는 것을 놓친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자기의 가슴을 외면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 주기를 바라며 자기의 눈을 외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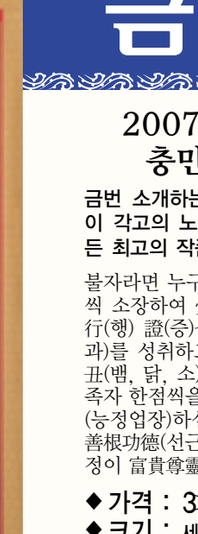
미국에서 마음수행을 하고 있는 레너드 제이콥슨의 이 책은 잠언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우선 읽기가 편하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공안(公案)과 같은 싯구들은 독서를 잠시 중지시키고 사유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깨어남으로의 초대'란 책의 부제처럼 저자는 영적인 깨어남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막상 깨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 있다. 꿈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되며,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저자는 꿈속에서 깨어나, 지금 자기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존의 세계로 나오도록 조언한다. 그러기 위해선 즉 깨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포함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조건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완전히 다 읽기보다는 인생의 고비때마다 무작위로 들춰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마음은 도둑이다
레너드 제이콥슨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 9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3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4	육조대사 법보단경	법지	운주사
5	여보게 설거지는 했는가	활안	휴먼앤북스
6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무비	조계종출판사
7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8	삶과 죽음, 바르도의 실체	중암	정우서적
9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운주사
10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지수	불광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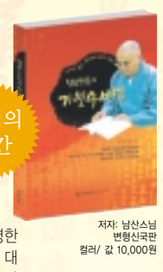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제의 신간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국부카르마 문의: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 × 가로 78.5㎝ (양면은 14K금봉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합니다.)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더 큰 포교위한 '외도'



이종만 콘서트 / 4월 15일 문화일보홀

4년만의 공연 이종만식 노래 선사
불교 · 포크음악은 내 삶의 원동력
5월 3일~5일 찬불가 콘서트 예정

'불교음악'을 찾아 떠났던 긴 여행에서 이종만(49 · 사진)이 돌아왔다. 포크락을 한가득 싣고서. 그 음악 보따리가 4월 15일 오후 3시와 5시 문화일보홀에서 펼쳐진다. 제목은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이다.

그는 80년대 초부터 그룹 '참새를 태운 잠수함'을 결성해 포크음악계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며 주목받았다.

또한 96년부터는 '좋은벗 풍경소리'를 만들어 13년간 어린이 찬불가 포교에 매진해오고 있다. 본업이 바뀐셈이다. 그런 그가 왜 이번에 포그 콘서트를 열게 됐을까?

"장롱속에 꼭꼭 숨겨놨던 내 것을 좀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인연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는 그가 지난 10여년동안 열정을 바쳤던 찬불가는 레퍼토리에 없다.

"오랫만에 서는 포크 무대라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라며 가벼운 흥분을 내보인 이 남자는 2시간의 인터뷰 내내 사뭇진지했다. 3월 23일 인사동 찻집에서 만난 그는 점점 포크가수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 한 잔…정체성

"찬불가는 내면의 평화를 주지만, 포크음악은 삶의 희망을 주는 것 같다. 찬불동요음반은 23집까지 만들었지만 포크음반은 2002년 4집 '종로아저씨'가 마지막이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찬불가 포교에 온 열정을 바쳐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만을 생각하며 일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작아진 느낌이다. 이제 잠시 더 큰 찬불가포교를 위해 잠시 휴식을 동반한 외도를 하고 싶었다. 재충전을 위해서…."

▲차 두 잔…무대

"이번 공연은 4년만에 처음갖는 것이다. 2000년 들어 두 번째 콘서트니 정말 오래간만이다. 총 2부로 나눠 1시간 30분 정도 노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대표곡인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살아있는 기억' '어느 보조웨이터의 이야기' '장돌뱅이' '자유의 바람' 등 그동안 발표했던 음반 수록곡을 부른다. 2부는 재미위주다. '라구요' '물좀주소' '커피한잔' '빗속의 여인' 등 80~90년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이종만식으로 선사할 것이다.

기타이외에 피아노, 드럼, 베이스, 건반 등을 사용해 공연장이 아닌 마치 내 방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주고 싶다. 아직도 대중음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차 세 잔…음악

"불교음악과 포크음악 모두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80년대 밤무대에서 노래하며 비교적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항상 마음속이 허전했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일상, 술취한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상처받는 자존심 등. 항상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중 90년대 초 조계사 어린이 합주단을 지도하며 불교음악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는 내 업이 되버렸다. 어떤 장르의 음악이 든지 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을 믿고 산다."

▲차 네 잔… 포크가수 이종만

"중고시절부터 기타가 좋았다. 용돈을 모아 기타를 샀을때 모든 것을 다 얻은 느낌이었다. 정식으로 활동한 것은 1979년 그룹 '참새를 태운 잠수함'을 결성하면서부터다. 이후 86년에 첫 음반인 '이종만과 자유인'을, 89년 2집 '신사와 청바지', 92년 3집 '나의 선택', 2002년 4집 '종로 아저씨'를 냈다.

▲마지막 잔…그래도 '본업'은

역시 본업은 어린이 찬불가 포교다. 5월 3~5일까지 찬불가 콘서트를 연다. 계절별로 공연을 가질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5집 음반 기획도 고려중이다. 이번 공연처럼 본업을 잠시 휴업하고 돌아와 포크 무대로 이따금씩 휴가를 오겠다. 포크와 락은 내 정신적 삶의 원천이자 휴식처다. 일 할때나 휴가 때나 음악을 놓지 못하는 걸 보니 역시 음악은 내 삶의 전부인 것 같다. 공연문의 (02)723-9836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⑥

단체 창단 및 찬불가 책 간행 활발

1970년대 - 1980년 전편

1970년대는 불교음악계의 산하단체가 창단되어 행동으로 포교일선에 서서 활동이 시작되고 찬불가 책이 이곳저곳에서 간행되는 시절이다. 운문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972년 연화어린이합창단을 설립했다. 1979년 5월에는 불교동요집 <행복의 문>을 출간했다. 1970년에 찬불가 선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971년 불교연합회 주최로 찬불가를 공모했다. 최영철 선생이 작곡한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당선되었다. 요즘 불자들이 법회 의식 등에서 부르는 노래다.

1972년 연화어린이합창단 설립
반영규 · 서창업 선생 활동 본격화

1970년 서창업 선생이 불교계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 삼보법회합창단 창단, 1974년 6월 '불교음악연구원' 설립, 1976년 4월 <서창업 찬불가>출판 등 활동이 돋보였다. 반영규씨는 1972년 서창업 선생을 만나시면서 본격적인 불교음악을 시작했다. 1973년 문서포교 '자비의 소리'에서 불교노래 포교를 시작, 1975년 불교청소년지도자협의회 구성 후 청소년 음악법회인 '붓다의 메아리' 창단, 1978년 육군본부 중앙법당 베나레스학생회의 마하야나합창단 주최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음악회 개최, 1979년 동국대 강당에서 찬불가 경연대회 등 많은 일들이 불교음악계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시대에 출간된 찬불가집을 통해 서창업 선생과 운문 스님의 찬불가에 대한 열정과 당시의 정황을 엿보도록 하자. 우선 서창업 선생님이 1976년 출간한 <찬불가>의 후기 일부를 보자.

"교리가 행동의 좌표 설정이 될 수 있을망정 결코 그 자체가 행동일 수는 없다. 아니 행동이 따르지 않는 교리는 교리를 알지 못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미혹 중생보다 더 중대한 업을 짓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다. 그들에게 불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자. 감로법을 노래에 담아 그들의 마른 목을 흥건히 적시어 주자."

1979년 운문 스님의 불교 동요집 <행복의 문>의 머리말을 살펴보자.

"과거의 우리에게는 범패라는 훌륭한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불교 노래가 꼭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갖추어지질 못했다. 특히 요즘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그것을 역설하는 선각적 불교인이 부쩍 늘어났다. 이 찬불가집이 이 시점에서 태어난 것이 실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수록된 찬불가 100곡 중에도, 운문스님을 비롯한 몇몇 선각자에 의해 참으로 소중하게 마련되고 발굴된 것이 적지 않다. 불교음악연구원이 태어나게 된 동기도, 이러한 선각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뒷받침에 의해서였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⑦



그림: 이상배 화백

오래산 지장암

장인성 시인

입추 지난지도 한참인데
월정사 가는 길은 눈발에 막혀
전나무 가지 꺾어 지팡이 삼아
더듬더듬 짚어서 지장암에 들었더니
겨우내 얼부풀어 불그레한 비구니의
가느다란 눈썹과 뽀얀 덧니가
눈물나게 눈물나게 서러웁기로
깊은 산엔 봄마저 더디오나 보구나.

지장암(地藏庵)-오대산의 다섯 봉우리중 남대에 자리한 비구니암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선방을 열었던 유서깊은 도량이다.

흙으로 빚은 생명의 소리

불교미술가 김영수씨 소조 불상展

'흙에도 생명이 있다'

소조불상 작가로 4월 8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첫 전시를 열고 있는 김영수씨(36)는 그의 오브제인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인도의 수행자, 고행하는 스님, 부처님 등 그의 손을 거치면 하나의 생명체가 완성됐다. 이번 전시는 몇해동안 꼭꼭 그의 작업실에 숨겨놨던 그의 생명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김씨의 작품인 '아미타불' '인디아 두상' '도천스님 두상' 등을 접하면 마치 살아있는 인물을 접하는 것 같다. 그



만큼 생동감이 넘친다. 그 힘은 달마도와 같은 굵은 선에서 온다. 이번 전시 작품중 하이라이트는 '3천배 올리는 군상'(사진)이다. 보는 순간 탄성이 나올 장도로 장엄하다. 마치 중국 서안의 병마용을 보는 것 같다. 그의 작업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하나씩 가족 단위로 만들게 한 것이라고 한다. 법련사 불일미술관장 보경 스님은 "버리고 바치고 비우는 불교적 신심을 담아 3000개의 군상이 일심일체로 원융하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절 집안의 군상들을 생동감 넘치는 흙조각을 통해 음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02)723-1002

김주일 기자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강승규, 이하 불교사진연합회)는 4월 20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1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불자들의 신행모습, 사찰 내 사부대중의 모습,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습, 문화재 등 불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며,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이미지를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에 온라인 접수시키면 된다.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200개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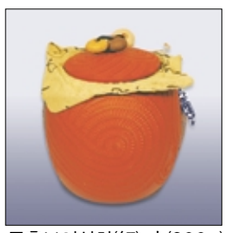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 주문전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5. 파초의 주장자

서옹 상순(西翁尙純, 1912~2003) 선사를 만나게 된 것은 내 삶의 크나큰 광영이었다. 스님께서 80노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강릉에서 찾아 올라간 나를 한 번도 마다하시지 않고 7년간 일곱 차례나 일천한 공부를 점검해 주시는 두터운 법은을 내리셨다. 참으로 지극한 낙초자비(落草慈悲)였고 간절노파심절(懇切老婆心切)이었다. 백골(白骨)이 난망(難忘)이다.

그 중 잊혀 지지 않는 법문이 바로 파초산 혜청 선사의 주장자 법문이다.

파초 선사는 우리나라 신라인이며, 위앙종의 4대에 속한다. 그의 스승은 남탑광용이고 광용은 앙산의 제자이다.

이 파초 선사의 주장자 공안은 오늘 날까지도 우리나라 선방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역 공안으로 빛을 발한다. 필자 역시 이 지팡이에 경을 친 적이 있다. 1990년경 서옹 선사를 참문 할 때, 나의 분별심을 향하여 비수같이 날아들던 지팡이였다.

㉮

있음과 없음은 고금에 두 겹의 관문이니
有無今古兩重關
바른 안목 가진 선객도 지나기 어렵다
正眼禪人過者難
장안으로 가는 큰길로 통하게 하려거든
欲通大道長安路

보배 지팡이 네가 가졌으면 줄것이고…
양변의 관문 통과하기 어려움 실토
자성 본원의 거울엔 천지만물이 비칠 뿐

곤륜이 활개 펴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莫聽崑崙敍往還

– 투자청

㉯

그대에게 있으면 일체에 있고
有則一切有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你無則一切無
있고 없는 것은
你有無
오직 본인이 준다 뺏는다 할 뿐
自是當人與奪
파초에게 무슨 관계있으랴?
關芭蕉甚事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주장자인가?
正伊麼時作麼 生是你拄杖子

– 천동각

무더운 한 여름 서옹 화상을 뵈었다. 스님이 나에게 말했다.

"억울하냐? 그래도 억울하면 다시 한 번 해보자. 나에게 보배로운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네가 가졌다면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한테 이 지팡이가 없다면 내가 빼앗아 가겠노라는 법문이 있는데, 그럼 이 도리를 네가 한 번 일러봐라."

잠시 양구하다가 말씀을 올렸다.

"스님, 스님과 저, 모두 같은 지팡이 안에 있는데, 무얼 주고받는단 말씀입니까?"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스님이 말문을 열었다.

"아니야, 아니야 탕기에 때가 묻어 때가 묻어나. 다시 참구하라. 왜 국민학생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철봉대에 마지막 턱걸이를 하듯 그렇게 다시 참구하라."

투자 의청의 ㉮ 게송에서 보듯이 '이유/무 양변의 관문은 실로 눈 푸른 납자들도 통과하기 어려움'을 읊었고, 또 '무상대도(無上大道)의 길을 사통오달되게 하려면, 4행에서 곤륜인이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곤륜족은 티베트 북쪽 일대에 사는 흑인종족이다. 곧 나의 마음이 나이며 자성이고, 이 자성의 활성화가 평평범범의 일상사이니, 특이한 생각으로, 밖에서 자성본원을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짓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다.

㉯는 천동정각이 시중한 염(拈)이다. 자성본원은 큰 거울과 같은 원만한 지혜로서, 일체 삼라만상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비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비친다/비춘다'를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니 파초 자신이 괜히 '준다/뺏는다' 하며 분별하여 사람을 속일 뿐. 이 자성의 형상화인 주장과 파초와 사실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이럴 때 무엇이 주장자이고 무엇이 나인가?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❺

새벽강
김지하 | 시학 | 1만원





불교적 사유로 생명 · 평화 그려내

1941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한 김지하는 4.19혁명 참여 및 남북학생회담 남측대표, 담시 '오적'으로 투옥,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랜 감옥생활을 한 기구한 운명의 시인이다.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한 그는 1969년 <시인>지로 등단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 특별상, 세계시인대회 위대한 시인상, 브루노 트라스키 인권상 등 국제적인 상과 만해대상 평화상을 받았다. 만해문학상 등 국내의 많은 문학상도 수상하였다.

동양 전통의 세계관적 사유와 영성적 통찰로 생명과 평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최근 "불교에 기대한다. 온 인류가 불교에 기대한다. 지구, 우주, 전 중생계가 불교에 기대한다."(<불교문예> 2007 봄)며 불교에 인류의 미래를 맡기는 시인이다. 불교가 우주적 보편성을 가진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현존 의식을 다음과 같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단군기원
사천삼백삼십칠 년

정월
우수 뒷날

내 마음을 마주해 앉자
세 가지가 떠오른다

모심
침묵
한 허름한 현실주의.
– '세 가지' 전문

시인이 예순 네 살의 정월 우수 뒷날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본 결과 모심과 침묵, 그리고 허름한 현실주의가 자신의 정체라는 것이다. 모심은 동학에서 나온 것이고 침묵은 불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내 사상의 망막은 불교이며 그 눈동자는 동학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그가 도피안을 보는 방식은 이렇다.

피안 같은 건
있지도
않다

그날도
없다

더욱이
있음 같은 건 아예 없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살아있음 뿐

지금 여기
살아 있음이 끊임없을 뿐

오늘이,
오늘이 바로
그날.

– '도피안' 부분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❺ 땅두릅산적과 땅두릅회

열매 꿀에 재워 마시면 기침에 효과
순은 나물, 꽃은 튀김, 뿌리는 약제로

이번에도 땅두릅으로 맛있는 사찰음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땅두릅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므로 정원에 심어 길러도 관상용으로 멋집니다. 잎사귀가 풍성하고 늦여름이면 꽃이 불꽃놀이처럼 튀면서 탁구공만한 여러 송이가 모여 하얗게 피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까맣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그늘에 말려 곱게 가루를 내어 3~4 그램씩 꿀에 재워서 아침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기침에 특효약이 됩니다.

땅두릅은 어린순 그리고 꽃, 열매, 뿌리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식품이기에 산사에서도 스님들의 식용이나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린 순은 나물로, 꽃은 튀김이나 찹쌀물을 발라 말려 부각으로 만들어 먹으며, 뿌리는 약제로 훌륭히 몫을 해냅니다. 병명에 따라서 다른 약제와 혼합해서 쓰기도하고 땅두릅 자체만으로도 인삼 버금가는 약효를 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차로 마시거나 식혜나 엿을 고을 때 넣어 먹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땅두릅을 이용한 산적과 봄철 입맛을 되살려줄 땅두릅회입니다.



땅두릅산적
재료: 땅두릅, 두부, 밀가루, 식용유

1. 땅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굵은 것은 4등분으로 쪼개고 가는 것은 2등분으로 쪼개 7센티 길이로 자른다.
2.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 프라이팬에 콩기름을 두른 후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잘 구워진 두부는 7cm 길이로 썰어둔다.
3. 산적꽂이에 땅두릅과 두부를 번갈아 끼운 다음 엷은 밀가루 반죽에 묻힌 후 구워낸다. 이때 밀가루 반죽은 두부와 땅두릅이 겨우 엉킬 정도로 엷은 반죽이어야만 색깔도 살고 먹기에 부드럽고 향기도 더하다.

땅두릅회
재료: 땅두릅, 고추장, 식초, 설탕, 잣

1. 땅두릅은 연한 소금물에 파랗게 살짝 데쳐 굵은 것은 4등분, 가는 것은 2등분으로 쪼개 둔다. 두릅이 클 경우 길이가 7~8cm 정도 되게 썰어 둔다.
2. 고추장, 식초, 설탕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을 만들고 잣을 섞는다.
3. 미리 준비한 땅두릅 데친 것에 초고추장을 넣어 먹기 직전에 버무려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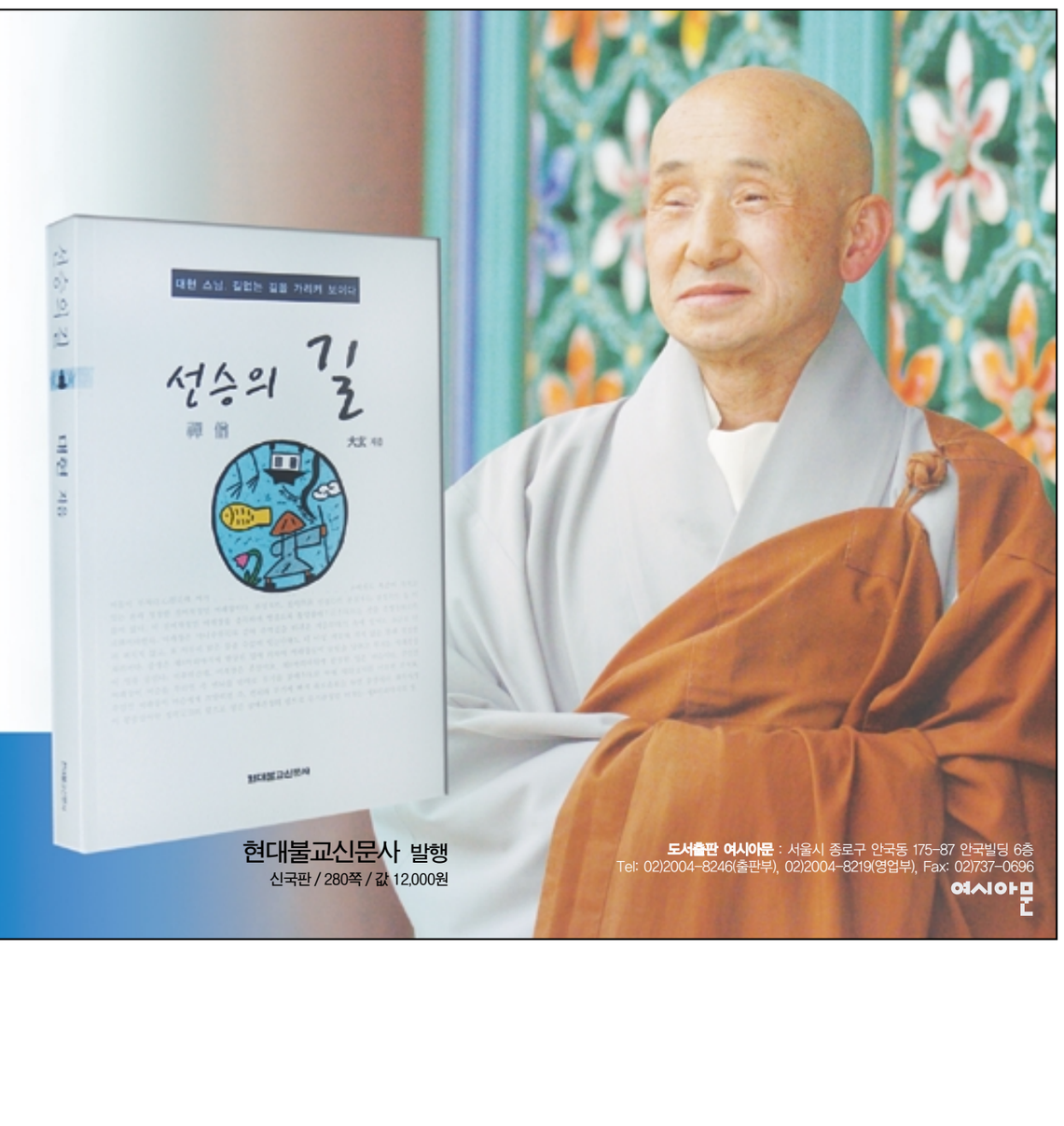
「대현 스님」 길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다

선승禪僧의 길

화두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밤낮으로 함께 지내는 연인 같다면
누가 참선수행에 몰입하지 않겠는가?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길 없는 길!

無等大玄 스님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신 스님은,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셨다.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가파르고 힘든 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하며 위빠사나와 염불주력 수행의 도움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쌓을 수 있다고 하신다. 서울 우이동 보광사 보광선원 선원장이시다.

중생은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에 의해 여래장심이 굴림을 당하고, 부처는 여래장심으로 업을 굴린다. 비유하자면 여래장은 주인이요, 제8아뢰야식에 함장된 업은 머슴이다.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을 부려서 번뇌를 반야로, 무기를 불매不昧로 바꾸어 대원경지를 이루면 부처요,
주인인 여래장이 머슴에게 끄달려서 번뇌와 무기에 빠져 육도윤회를 하면 중생이다.
— 본문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el: 02)2004-8246(출판부), 02)2004-8219(영업부), Fax: 02)737-0696
여시아문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아기(낙태,유산)
영가천도 전문도량
(사찰행사 문의 바랍니다)
011-445-9549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기원 합장

빙의 현상, 신끼, 무병, 정신질환, 두통, 알콜중독, 만성질환등
재물을 차리지 않고 초능력의 힘 기(氣)로써 빙의된 조상이나 태아, 타인영가, 잡귀신등 몸이 고달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고 치료함
특별한 능력을 갖춘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을 불사하거나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55)260-1230
011-586-6091

역학속성 개인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건강뜸
기초에서 완성까지
1개월 수료후 문서기증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비법전수 부처골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강의 및 법문
문의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사

秘法전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충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고차원의 강력한
에너지장 안에서 마음을
정화하며 치유 생명의
근원과 만나는 지름길
현존명상센터
010-6299-0570

연꽃분양
백련을 키우는 승입니다
논이나 큰 다라에도 가능하며 심어도 드립니다
010-2511-1188

공양주 보살님
남해 바다 근접한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수행하며 무보시로 지내실 분을 모십니다 (연령 제한 없음)
▷전남 고흥
010-2511-1188

500나한 기도도량 선지사
행자
공양주 모집
055)329-1056

부전자리 원합니다
(50대 초반 비구스님임)
010-9474-0800

평생 도반,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여생 마음편히살아가실 보살님 인연바람
동참금 지참
018-406-307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1)673-2333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산사>
011-9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모 보살님 모십니다
(6,8세 아이)
055)335-644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조치원 인근 사찰
기도생활 적합니다
(월 급여70만원)
010-6430-030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1)256-3483

스님 병원 이동시 봉사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차조지자로 PC 가능하신 분을 기다립니다
공양주보살(63세이상)
031)536-1578
011-9269-8445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감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초반)
031)673-5502
심복사 (경기도 안성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동해
019-273-0950

부산 금정산에 위치한 아담한 사찰입니다
평생사실 노보살님 세분을 모십니다
(스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 모십니다)
051)518-7721

비구, 비구니, 행자모집
범음,범패,명리,철학 배우실분
기도하면서 요양하실 분
<대전 서구 흑석동 무심사>
042)582-3196
011-9725-3196

사찰운영 맞기실분
역학 능통 (비구승)
010-9386-232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285-5737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일정기간 습의,
교육 후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 등에서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예비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61)754-5247(종무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태고총림 선 암 사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특별지도는 승려에 한함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송월스님의 "사주학 핵심비결"강의
철저한 실전위주 통변기법 공개된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육효학 핵심비결저자 (관음출판사)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역학" 전담교수
군산 성흥사(행자전문교육도량)
063)453-0050 www.성흥사송월.com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부동산풍수
부동산 관련사업자에는 필수화된 현대풍수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이제는 부동산도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부동산에 풍수를 접목시키는 시대흐름은
동양사회를 넘어 이미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유럽에서 오히려 더욱 선풍적입니다!!!
(패철증별해설, 88향법, 현공풍수, 양택 등 풍수의 모든것)

■ 수 강 료	30만원
■ 교육기간	12주(3개월)
■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교육장소	라이프 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 종로구 숭인1동 55-6, 지하철 6호선 창신역 4번 출구)
■ 개 강 일	2007년 4월 26일(목) 오후 3시
■ 접수문의	라이프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2 담당교수 : 박 상 건 011-246-1079 (현 한미교육교류재단 겸임교수, 라이프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특 전	○ 수료생 전원 동방철학연구학회 정회원 가입 및동문회 결성 ○ 미국 LU대학교 교육과정 인증 및 유학 가능

라이프평생교육원
www.lifeschool.co.kr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위치:충북 충주 ● 위치:강원 원주 ● 위치:부산
● 법당:20평 ● 법당+요사:140평 ● 법당+요사:150평
● 요사:30평 ● 부지:560평 ● 부지:135평 (즉시법회가능)
● 부지:287평 ● 가액:6억5천 ● 가액:15억
● 가액:4억2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조건 : 조계종 비구니스님이며 승용차 있어야 함
● 위치:전남 신안군 섬마을
● 부지:대지 250평
● 건물:임법당 포함 30평 (스라브 부록)
● 자연경관이 좋고 집기류 일체양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2천만원
061)275-96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원주시립박물관 옆
● 2층건물 중 2층. 4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258-1147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김천 ● 위치:서울
● 부지:1000평 ● 부지:만평
● 법당:12평 ● 법당:25평
● 요사:20평 ● 요사:30평
● 가액:1억2천만원 ● 가액: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33-010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속초중심가 최요지 4층 건물 3층.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이며 환자 치료하신 스님, 역학하시는 스님이면 더욱 좋은 곳
좌욕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꼭하신 분만 전화요망
054)956-96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안성시 죽산면
● 대지 160평 실사용평수 200평
● 1층 적조슬라브, 요사채 겸 살림집 30평 2층 조립식 법당 25평 삼존불 영가단 후불탱화 일절
● 가액:1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천 2백만원 포함)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2리
● 대지 70평, 옛 기와집. 임법당. 60년된 고찰
● 교통편리, 동네 가운데 있음
● 가액 : 1억
010-7571-245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전체평수 4390평
● 대지:종교시설부지2000평 허가진행중, 사찰건립계획도 있음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화장실 10평 겸에 주택계획도 있음
● 현재토목설계 1차 500평 허가 득, 2007년 3월 2차 500평 허가예정(현재진행중)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주목군락형성
● 주택1동, 창고1동, 촌집(산입구 오른쪽에 있음) 전원주택(텃밭가능) 목조기와,주거가능 -별도거래 대지 약100평, 건평 약15평, 창고 약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 지하수(청정1급수) 청정한 수행자분이 부처님 전에 기도 후 점지된 땅 ● 가액 : 3억 조정가능
011-741-3415, 010-6283-9792

사찰안내
● 위치 : 여천군 여천읍 군청 뒷편
● 20년된 사찰, 법당1채, 요사채3칸
● 산신각 용왕각 칠성각 법당하나에 각각 조성되어 있음
● 가액 : 2억
010-7571-2451

포 교 원 안 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불광동
● 공찰 주지 취임관계로 10년된포교당 양도함
● 원불 350불 모셔져 있음
● 가액:보증금 시설비 합 4500만원
02)386-993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 태평동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 평수 40평, 3층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미륵동불,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탱화
● 에어컨 및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사 찰 안 내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부 지〉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원 안내
● 위치: 창원시내 상가건물 4층중 3층
● 평수: 9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포교당 안내
● 위치: 김포 신도시
● 건물: 4층에 2층 50평 삼존불, 후불, 신중, 감로, 원목불단 법당시설 특급환벽, 즉시 법회가능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세 30만원(조정가능) 시설비: 답사후 가격절충
● 포교에 원력을 갖고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11-763-1080

사 찰 안 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21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역 10분거리
● 평수:4층건물중 3층(35평), 옥상사용가능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약간
● 삼존불,신중,지장,산신,후불탱화
● 집기일체, 영험도량, 즉시법회가능 인연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0-8676-6921

토 굴 안 내
● 위치:충남 금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 부지 405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202-3699
041)753-8137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남원시 주생면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190평 (90평 텃밭사용)
● 방4개,후원,화장실,창고
● 가액 :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010-5631-8439
010-6401-4939

어렵게 시작하는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밀집지역 1층 20평 법당 1개 방2개 살림가능
● 산신탱화 문화재인작품 5×10자 고급 쌍호신 산신님 5자 단청고급 법단 원목9자
● 총 인수가:8백5십만원 보증금: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350만원 역학,철학,보시는분 현재운영중
010-6411-2882(일요일 답사)

포교당안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12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5층:스님실 30평(방2)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연락처011-820-46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전체 770평
● 법당 25평, 요사채 2채, 방4개, 창고 35평
● 별장용(명당),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적당한 곳 관상용 양어장 있음
● 가액:2억원
010-8564-0302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삼남면
● 평수 : 60평(3층건물중 2층)
● 법당, 방3, 화장실, 욕실
● 아미타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관음탱화, 신중탱화, 지장보살 소불, 108불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 집기일체 2천만원
010-6527-0305

사 찰 안 내
● 위치: 남원 지리산 휴양림역
● 평수:2,000평, 대웅전, 산신각, 독성각, 별채, 요사채 50평, 심야전기
● 주위에 오래된(200년)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는 경관수려한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11-411-0503
063)625-9992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암2구 167-1번지
● 평수:1036평, 대지:200평
● 건물:요사채+법당=90평
● 법당 40평, 요사채 방7 산신용왕당 40평
● 가격: 5억원(절충가능) 전세도 가능 굿당 할사람도 가능
043)284-776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송현동 월촌역 부근
● 평수 : 53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및 집기일체 완비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아산뒤 KTX 고속전철 15분거리
● 대지:3,700평 ● 법당, 요사채:150평
● 큰석축, 조경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천하의 절경, 명당자리, 큰바위가 많음
● 가액:23억
※인연이 되시는 분 전화 주시면 상의하에 양도해드리겠습니다.
011-850-017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정릉
● 부지 : 300여평 법당20평, 요사50평
● 가액 : 2억7천만원
노송이 우거진 경치좋은곳
02)909-0215
010-8501-69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평수: 3층 25평
● 삼존불 봉안, 각 탱화 봉안
● 보증금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즉시 법회 가능(시설일체완비)
018-315-0108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2동
● 대지 108평
● 1층 58평(법당) 2층 53평(행사실) 3층 40평(주택)
● 농협융자 2억1천5백만원 가액:5억 8천만원
011-9335-9110
051)571-34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 3층 50평
● 가액: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1-9323-4478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위치
● 작은계곡 접하고 다용도 가능한 관리지역
● 1030평
● 가액: 5000만원
011-570-13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외동
● 평수 47평
● 기타시설 완비
● 가액:전세 2000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5)324-1865
011-582-18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가1리
● 사찰부지: 1천평
● 법당 15평, 산신각 3평 연못 위에 용왕각 3평
● 요사채 조립식건물 75평
● 가액: 2억 8천5백
016-536-8774

암자 하실분 명당터 안내
●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IC옆
●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뒤에는 천봉산과 갑맞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명당터
● 대지:205평, 300평, 456평 건물:40평, 25평
● 7000만원 가격 협의
043)732-8285
010-3545-99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017-846-4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현대식 건물
● 부지 100평 건물 180평
● 가액 : 9억5천
※관심있는 분 전화문의바람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근교
● 부지: 약2000평
● 건물:145평
● 대웅전, 삼성각, 종각, 요사채2
● 가액 5억 3천만원
017-372-8968

탈종공고

● 사찰명 : 수덕사
● 주 지 : 고현(이용욱)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부아산 산 428-6번지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1년 4월 4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수도암
● 주 지 : 成道 (김진욱)
● 주 소 : 경남 마산시 완월동 120-9

상기사찰은 개인적인 사유로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1년 4월 4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구미최고요지
● 약 40평
● 법당, 삼존불, 방2(거실겸 주방)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019-599-0017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명륜2동
● 법당(단청) 30평
● 2층 요사채 20평 대지 71평
● 지하철 5분거리, 버스 1분거리, 주차가능
● 가액 : 1억8천만원
051)555-8516
010-8550-84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외동
● 대지 279평, 답 117평 하천 63평(등기허가필)
● 건물 : 법당,목조, 골기와 20평. 단청완료
● 산신각,요사채 35평,식당 16평
● 가액 : 5억2천만원
※꼭 인수 하실분만 연락바람
054)746-2080
011-878-4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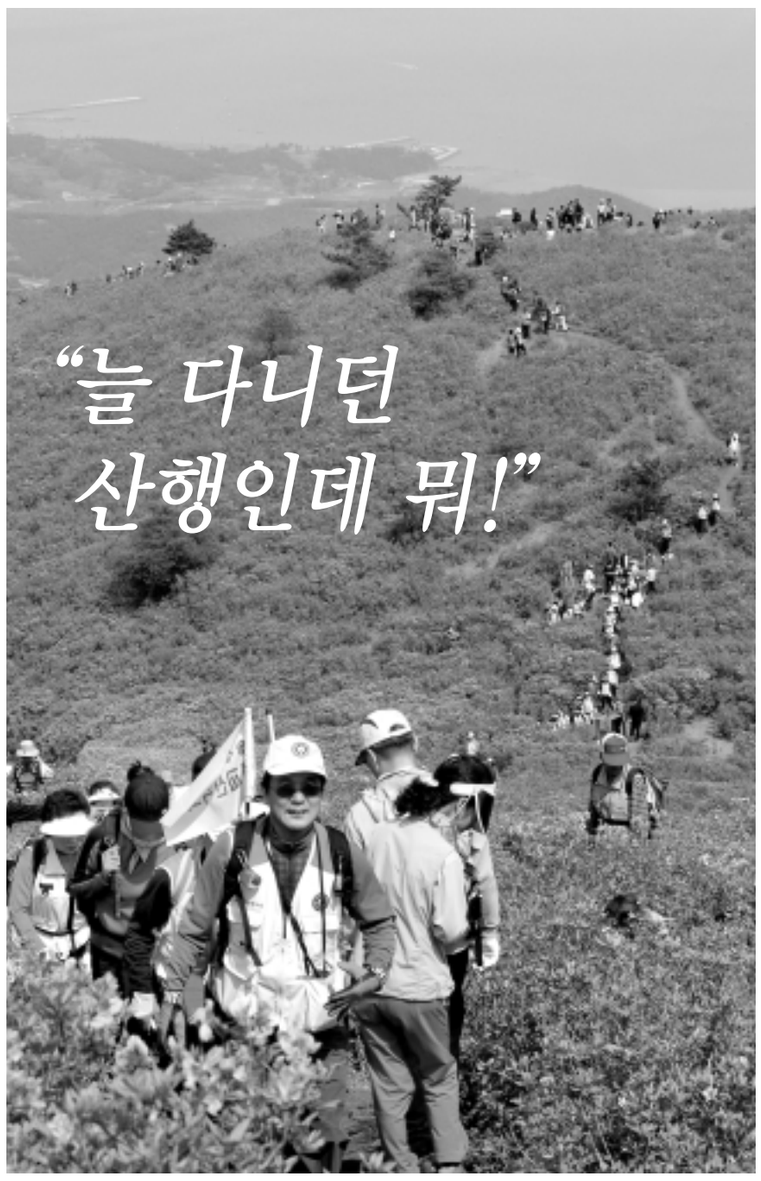
토 굴 안 내
(스님이 공부하던곳)
● 위치 : 동두천시청에서 3분
● 대지 80평
● 방2개, 거실, 텃밭,주차 有
● 가액 : 2천5백, 전세1800만원
● 위치 : 안동시청에서 5분
● 평수 : 방3, 거실, 주방
● 삼면이 산 텃밭과 주차 有
● 가액 : 2천만원. 전세950만원
010-5438-235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시 유구읍 근교
● 산밑 아담한 기도처
※최상급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50평, 법당 15평, 큰방 2, 작은방 1, 주방겸 방 1
● 주불 아미타불 양대보살, 지장불, 산신각, 집기일체
● 가액 : 6천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2)2603-2992
011-340-5963
017-202-875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천하명당 대 도량터
● 평수: 5700평 대지: 300평 중 건평150평 대웅전 33평, 분할도 가능 2400평(대웅전,요사채 포함)
● 골조공사완료(포크레인1대, 숙식가능한 콘테이너 한동 무상보시)
● 꼭 인수 받을 분만 전화바랍니다
● 가액:상담 후 결정
010-4512-0813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4거리
● 평수:50평(3층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크방1,작은방1, 창고, 주방 및 거실 있음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크방 에어컨 절치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손 볼 곳 없음)
011-9000-6311
053)290-6311



'봄철 산행 방심은 금물'

"날씨도 따뜻한데, 등산이나 갈까?" 꽃샘추위도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사찰 순례를 겸한 주말 산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지만 '봄 산행쯤이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 겨우 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생기거나 변덕스러운 날씨, 무리한 산행 등으로 안전사고가 잦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봄철 산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산림청은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봄철 산악사고 안전수칙' 을 발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섰다.

▷점검 또 점검

'늘 다니던 등산로니까.' '가볍게 다녀오는 건데 뭐.'

봄 산행을 흔히 '바람 쐬듯 다녀오는 산행' 이라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가볍게 가지더라도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먼저 등산하고자 하는 산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둔다. 늘 다니던 산길이라도 등산로 통제 시간과 산행에 걸리는 시간, 위험구간, 식수를 구할 수 있는 곳 등을 점검해 본다. 특히 등산 전날과 당일 날씨는 꼭 점검해 두어야 한다. 최근 꽃샘추위로 등산길이 얼지 않았는지, 갑작스런 비나 눈 소식은 없는지를 파악해 둔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흐릴 경우 여분의 긴팔 티셔츠나 방수외투를 준비하는 등 겨울에 준하는 산행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가기보다 자신의 체력에 맞추어 하루 산행 일정을 정해두고 떠나도록 한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체력저하나 잠복해 있던 질환으로 응급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일정은 일몰 2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잡고, 산행은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산행 시에는 30~50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한다. 쉬는 동안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체온증' 을 막기 위해 보온외투를 입는다.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오르지 말고 등산화와 등산복을 챙겨 입는 것도 기본이다.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등산 시 짐은 손에 들기보다 작은 가방에 넣어 메는 것이 좋다. 가방 속에는 긴팔 셔츠와 방수 · 방풍 외투, 장갑, 휴대폰 여분 배터리, 식수와 체력 보강을 위한 초콜릿 등의 간식거리를 넣어 간다. 헤드랜턴이나 손전등, 붕대와 지혈제 등 응급 용품도 챙겨둔다. 평소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넉넉하게 약을 챙기도록 한다. 4월 중순까지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모자와 선글라스 등도 챙긴다. 처음 오르는 산이라면 지도를 구해 수시로 보면서 등산한다.

▷발목이 삐었을 때는

산행 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상은 흔히 '발을 삐었다' 고 하는 '발목 염좌' .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산에 오르거나 눈이 녹은 내리막길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삐는 일이 잦다.

발목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전에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 등의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급하게 산을 오르지 말고 땅이 얼었는지 녹았는지 잘 살피고 발을 내딛는다.

걸음걸이도 중요하다. 평지에서 걸을 때와 달리 발 앞쪽부터 땅에 디뎌 발목에 실리는 체중을 고르게 분산하고, 오르막길에서는 경사에 맞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이듯이 걷는다. 내리막길이라고 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일 발목이 삐었다면 산행을 즉시 멈추고 손수건에 물을 적셔 발목을 감싼다. 붓기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려 손수건으로 발목을 꽉 묶고 발목을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다. 산을 내려온 후에도 발목이 계속 아프다면 병원을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야호~!' 산새들이 놀라요

산 정상에 올라 내지르는 '야호~!' 한 마디는 힘들게 등산하며 느꼈던 스트레스를 일시에 날려줄 것만 같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삼가야 할 일 중 하나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은 "4~7월까지는 새들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기간"이라며 "야호 등의 큰 소리는 새들의 번식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달라"고 말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거나 취사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등산 코스 · 날씨 정보 파악
- 체력 과신한 산행일정 위험
-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
- 4~7월 새 번식기 고함 금물



<봄철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

1. 등산로나 날씨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
2. 겨울산행 장비도 잊지 말라.
3. 짐은 적게 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마라.
4. 자신의 체력과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5. 일몰 2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라.
6. 산행시간은 8시간을 넘지 말라.
7. 긴급 상황 대비해 체력의 3할을 남겨두라.
8. 일행 중 가장 느린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여라.
9. 지도를 휴대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라.
10. 건조한 날씨에 산불을 조심하라.

자료제공=산림청



31. 홍차에 도전한 일본

19세기 후반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차 시장에 일본이 차 수출에 끼어들기 시작하였다.

1858년, 일본은 220년 동안의 긴 쇄국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고 영국, 미국, 러시아 등과 통상을 체결하고 수출 품목으로 차(茶)를 내세운다. 세계 차 시장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일본은 영국에 녹차를 수출했다. 하지만 영국인을 비롯하여 유럽인들의 미각은 이미 홍차에 익숙해져 있어 녹차가 수출 상품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이때 영국은 일본의 개항장에 영사를 보내 차 생산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시작해 정보를 수집한다. 차의 생산량과 차의 제조법 등 차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일본차는 영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영국에 수출된 일본차는 주로 다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됐다.


홍차 공장.

일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차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친다. 일본 정부는 차 업 장려 정책을 펼쳐 녹차에서 홍차 제조 중심으로 하는 차 산업 구조를 바꾼다. 하지만 홍차는 일본 내에서 수요가 없었던 까닭에 만들어지지 않아 홍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중국인 홍차 기술자를 고용하여 홍차 만드는 법을 배우고, 1874년 홍차를 만드는 법을 각 지방에 배포해 홍차 만들기를 장려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을 위해 각 나라마다 사람을 파견하여 홍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세계의 차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린다. 산업 장려 요원을 인도의 홍차 생산지로 보내 재배에서 만드는 기술까지 직접 배워 일본에서 실험 재배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자 교습소를 설치하여 홍차 생산 증대와 보급에 힘쓴다. 이러한 제품을 세계 만국박람회 때마다 홍차를 출품했다.

하지만 호주에서 판매된 일본차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팔리지 않았고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 일본 정부는 차업 조합을 결성하여 준칙은 만들어 차에 종사하는 제조자와 판매업자들에게 준칙을 지키도록 단속했다. 홍차의 품종, 거래 방법, 가격 등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외국인을 통하여 거래하여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다. 외국상인들이 일본 각지에서 차를 사들여 일본에 차 공장을 설치하여 다시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일본 차 시장 진출 · 차 장려 정책 펼쳐
영사관 통해 중국의 제다 방법 등 수집

한편 19세기 중엽 이후 교통, 해운, 전신의 발달로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이 발달하게 되었다. 1851년 해저전선이 도버해협에 설치된 이후 유럽과 신대륙만이 아닌 상해와 일본의 나가사키사이에 전신망이 연결되어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랜 쇄국으로 인하여 정보에 뒤떨어져 있던 일본은 영사관을 두어 민간상사와 기업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통상정보를 교환하고 정보 수집활동을 했다. 영사관에서는 중국의 생산지와 차 생산량과 제다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보고했다. 홍차, 녹차와 다양한 종류의 차에 대하여 이름과 만드는 방법까지 영국과의 상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보냈다.

이처럼 일본은 영사관에서 시장 조사와 현황보고는 물론 상거래 지침서까지 보내 홍차 수출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인도, 실론의 홍차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정정 공고

지난 2007년 3월 28일자 현대불교신문 621호 5면에 게재된 성명서 내용중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합니다.

성명서 내용중

"또한, 2월 21일 종단스님들이"

⬇

정 정

"또한, 2월 22일 종단스님들이"

불기2551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아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경추 편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만성피로, 뒤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심장, 폐, 간장, 췌장, 신장, 비장, 위장질환, 소장
요추 변비, 요통, 관절통, 좌골신경통, 하지순환불량, 생리통
선추 좌골신경통, 전립선, 생식기계통
미추 직장, 치질, 꼬리뼈의 통증
특전 속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4월 12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4주)
• 1박2일코스 : 2007년 4월 12일 오후 2시 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그림3 : 해인사 명부전 시왕도(제9 도시대왕) 속 지장보살.

망망한 업의 바다 건너 성불하는 그날까지

불화 속의 명장면 (25)

해인사 명부전 시왕도 속 '육도윤회승침도'



그림2 : 육도윤회도. 그림1의 부분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인다'라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미묘한 변화가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무질서해보이고 마치 혼돈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정한 질서가 있다는 카오스(Chaos) 이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예입니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현상이 밀접한 인과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한 낱 나비의 날갯짓이 이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삼업(三業: 口業 · 身業 · 意業, 사람이 말과 몸과 뜻으로 저지르는 세 가지 악업을 말한다)의 영향은 오죽하겠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에 부딪힐 때도 있고, 뜻 아니게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라고 도무지 영문 모를 억울함을 두고두고 곱씹고, 몇 번이고 가슴 찌르는 아픔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반복 체험하여 다시 그 상태로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모든 결과로서의 내 삶의 원인을,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은 현생의 또는 전생의 업(業)의 탓으로 치부하고,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선업을 쌓자'라는 힘찬 생각으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사상인 '업보사상'의 현실 긍정적 기능입니다.

불교는, 현상으로서의 주변 현실 및 자신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목표로 하기에, 자칫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에 따라 그 결과 또는 그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하는 업보(業報) 사상 · 인연에 따른 현상을 말하는 연기(緣起) 사상 · 영혼은 죽지 않고 업에 따라 육체를 받아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 등 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 '자,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자문한다면, 이러한 사상들이 지극히 현실 긍정적이고도 미래 지향적 생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업에 따라 내 현재가 결정되었다면, 특정 원인에 따른 특정 결과가 우주의 철칙이라면, 나는 나의 내세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일'을 위해 '다른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싫었다면, 오늘의 나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또는 팔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단지 오랜 습관 또는 부정적 생각의 사이클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보사상은, 살아생전에 착한 일(선업)을 행하면 죽어서 극락을 가고 나쁜 일(악업)을 행하면 지옥을 간다라는 극락과 지옥사상의 바탕이 되는 사상으로, 현재 삶 속에서의 개개인의 선행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극락에 비해 지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한 것을 보면, 인간은 선업보다는 악업 짓기가 참으로 쉬운 듯하여 많은 경전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악업의 인연이 끊이지 않으므로 고통 받는 중생도 끝이 없기에, 지장보살은 그 오랜 겁 동안 무수히 중생을 구제했건만 아직도 그 대원(大願)을 다 마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임무를 수행 중<지장보살본원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장보살의 대원, 원대한 맹세란 '당장의 자신의 성불마저 포기하고 몸을 육도(六道)에 천백 억으로 나투어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 49일간 중음(中陰, 또는 中有)을 떠돌다가 자신의 전생의 업과 후손들이 지내주는 재(齋, 특히 49재 또는 칠칠재)의 가피력에 따라, 다음에 태어날 곳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육도라는 여섯 개의 고통의 세계, 즉 천계 · 인간계 · 수라계 · 축생계 · 아귀계 · 지옥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의 주기를 돌고 또 돈다는군요.<그림2 육도윤회승침도(六道輪廻昇沈圖)>

동물 · 수라 · 아귀 등 육도 중의 한 몸을 받아 태어난다지만, 우리의 정신적 상태도 이 육도 속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육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탈'
끊임없이 지어지는 악업으로 지옥 생겨
지장보살 중생 구제 대업 언제 이루나!

즉, '지옥계'는 들끓는 불바다의 상태, '분노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아귀계'는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또는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탐욕'에 눈 먼 상태입니다. '축생계'는 마치 동물과도 같이 마냥 '본능' 또는 '충동'에만 탐닉하는 상태입니다. '수라계'(아수라는 전쟁의 신)는 이기심과 질투로 남을 이기려는 투쟁심으로 가득한 '싸움'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피곤한 삶입니다. '인간계'는 최저 인간다운 평범한 삶이지만, 언제나 지옥 · 아귀 · 축생 · 수라계로 빠질 수 있는 나약한 상태입니다. '천계'(또는 천상계)는 극기로 무언가 얻은 성공의 상태 또는 감각적 기쁨의 극치의 상태입니다만, 이 역시 위협받는 불안정한 잠시의 기쁨일 뿐입니다(오도면(五島勉)의 <사후세계> 중에서).

인간은 매일 또는 한 평생, 이 여섯 가지 상태의 거친 밀물과 썰물의 파도에 반복적으로 희롱당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악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이 들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 경지를 해탈의 경지라 하고, 여기서 벗어난 이를 각자(覺者, 깨달은 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이란 곳은 육도 중에서도 업장이 극히 무거운 자들이 가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고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죄업을 많이 짓고 죽은 어머니의 행방을 찾아 길을 떠난 한 바라문의 딸(지장보살의 전신)을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염부제(인간세상) 동쪽에는 철위산이 있고, 그 서쪽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망망 대해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몸이 쇠로된 악한 짐승들이 득실대고 있고 수많은 남녀가 가득 빠져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려면 이 지옥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이를 '삼업(三業)의 바다'라 합니다. 그 안에는 수백천 개의 지옥에 존재합니다.



그림1 : 해인사 명부전 시왕도 '제10 오도전륜대왕'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지옥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저지른 '악업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악업의 힘으로 생겨난 수많은 지옥들이 있고, 또 끊임없이 지어지는 악업으로 새로운 지옥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 , 또 그리로 직행하는 중생들의 물밀듯한 행렬 또한 끊임이 없기에, '지장보살은 참으로 오랜 겁 동안 무수히 구제를 했건만 아직도 그 대원을 마치지 못하나' 봅니다. 이 끊임없는 중생의 악업에 맞서, 지장보살 역시 끊임없는 구제 작업을, 지옥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벌이고 있답니다. '지옥 속의 중생마저 다 구하기 전까지는 성불(成佛)하지 않겠다'는 그에게 성불의 날은 언제나 올까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 수 비 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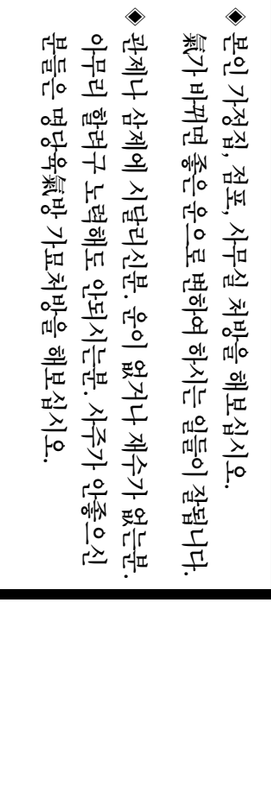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대행스님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 인줄 알아야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이 법당 한 자리지만 이 한자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한자리인 것입니다. 한자리란 그렇게 가벼운 한자리가 아닙니다. 한생각도 가벼운 한생각이 아닙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들한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지금까지, 아니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주춧돌 삼고 또는 거름을 삼아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법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바로 한도량입니다.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여래의 집이면서도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인 줄 아셔야 합니다.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四相), 즉 말하자면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대한 착, 또는 육근에 관한 착의 문제가 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空)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三合)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을 해야만 하는,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化)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 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 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십시오.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고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뒷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의 자기 내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선 그 자체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보신(報身)과 화신(化身) 또는 법신(法身)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육신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물부처가 따로 있고 불부처가 따로 있고 흙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 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 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 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三世心)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 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無)'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흥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줄 겁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상을 갖지 말라. 왜? 열 가지 빛 중에 하나를 내가 내세워서 이게 빛이라고 내놓을 게 없는 도리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늙어서 호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편을 만날 땐 부인으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애들을 만났을 땐 어머니로서 생각날 것이고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땐 친구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

☞22면으로 계속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발 한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 이상 사랑 받아 온

샨티데바의 HAPPINESS LESSONS

행복수업

김영로 옮김 | 변형 신국판 양장본 | 272쪽 | 값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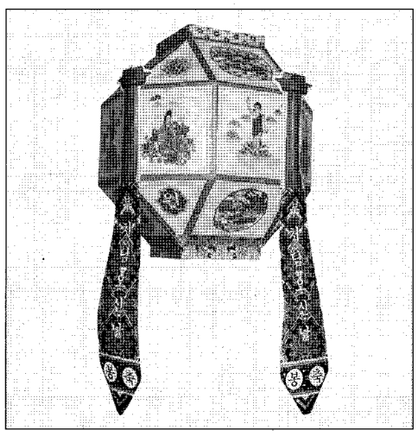
제1장 보리심의 공덕 | 제2장 악업정화 | 제3장 행보리심 일으키기 | 제4장 보리심 일으키기 | 제5장 지계와 정지
제6장 인욕바라밀(초월적 인내) | 제7장 정진바라밀(초월적 정진) | 제8장 선정바라밀(초월적 선정)
제9장 지혜바라밀(초월적 지혜) | 제10장 회향

『샨티데바의 행복수업』은 천여 년 전에 인도의 수행자 샨티데바(Shantideva)에 의해 보리수행(Bodhicharyavatara)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나온 이래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해온 참으로 훌륭한 행복교과서입니다.

샨티데바(寂天)는 금강승을 수행하여 한 생애 동안에 최고의 행복,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옮긴이 아찰라(不動) 김영로 님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영어 교육에 종사해오다(영어순해 저자), 최근에 보살계와 탄트라계를 받고 금강승을 수행하면서, 영어로 나와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옮겨 전하는 행복 메신저로서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석촌동 165-14, 전화 (02)420-3200, http//www.bulkwang.or.kr 불광출판부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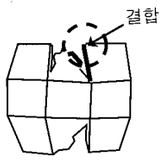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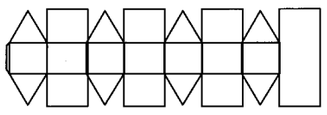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21면에서 계속

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행하는 것이 전부 고정되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 찰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찰나 찰나에 한 가지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는 거를 일일이 내가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부처님들은 바로 '무'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거를 내세워서 부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거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컴퓨터에서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넣는다면 무턱대고 자기는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 모든 걸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행적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 뒤바뀐 거죠? 주인이 만들어놓고 거꾸로 하인한테 먹혀서 도리어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리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내 몸을 지킬 수 있죠. 그걸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몸이 법당이라고 한 뜻은 무어냐?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이 대표로서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임을 맡은 그 생명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안다면, 자기가 마음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컴퓨터나 영사기나 그런 데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미사일에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거슬리지 않고 아래로 거슬리지 않는 반면에 즉석에서 자기 육신이 바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언어가 두 마디 세 마디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체가 없는 자기의 광대무변한 참자기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화해서 물에 가면 물부처가 돼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되면 바람부처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돼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지장보살이 돼줄 것이고, 법에 송사가 붙었으면 판사가 돼줄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경찰에 연관이 돼 있으면 경찰이 돼줄 것입니다. 이렇게 참, 광대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폭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빌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 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이름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름이 불교가 아니고 이름이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 따라서 바로 짝짝 갈라가지고서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인과를 받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한데 떨어진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든지 올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란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고 부처를 따르랬지 누가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오는 대로 저 부처님과 마음으로써 둥글려서 한데 합쳐서 안에 딱 놓고서 삼배를 올린다면 그냥 천배 올린 것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부처님께 '나를 구원을 해주시오' 하고 삼천배 절을 해도 아마 한생각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균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서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책을 읽어서 강의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뭐.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을까요? 그건 숫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팔만! 팔이면 벌써 그대로 사무(四無) 사유(四有)가 돌아가는 뜻입니다. '사천'이면 벌써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 하면 벌써 하나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경' 했거든. 팔십종호(八十種好)도 말씀하셨지만 '호'도 '종'이라고 했으니 '종'도 '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거를 한 번 자기 내공에 놓고, 의정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조실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오늘은 큰스님네들이 오시니 오만 평에다가 씨를 뿌려서 저녁에 요리를 해서 그 큰스님네들 한테 맛있게 대접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오만 평에다가 오늘 씨를 뿌려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낼 수 있을는지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볼 일입니다.

한마디 더 부탁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소에 가서 똥을 눴는데 똥 눈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입니다. 일체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앞발 떼어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은 떼어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단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금을 수만 관을 갖다가 쌓아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이야! 관리인이지 자기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대로 물건을 사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절에 와서 단돈 만원을 갖다 냈다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거는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놓은 것만 보였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선인과(善因果)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악의 인과도 그렇지마는 선의 인과도 짓지 마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생각을 하지 않고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량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름 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 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5년 4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갑니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겁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금강역사석조물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재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 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 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 강 : 2007. 4. 11(수 · 목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 교수

교육의 뿌리 흔드는 '정치'

'3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선 주자마다 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성향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책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 뺨칠 만큼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정치가라면 누구나 한가지씩 자신만의 교육 정책을 뽐내는 나라! 그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설치는 현상이 이제는 정치적인 무대 위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의 교육정책은 그렇게 훌륭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몇 년을 못버티고 정신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못잡는 현실은 왜 이리 반성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나마 오래 버텨오던 '삼불'마저도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것은 보면서 이제는 교육정책에 기본 줄기마저 하나도 남지 않는구나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삼불'에 대한 찬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문제는 정치적인 시류를 타고 이렇게 성급히 교육정책은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교육은 결코 섣부른 시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받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언제나 일회성의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그들의 고귀한 권리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다듬고 고쳐서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는 어디로 사라지고, 하루 아침에 뜯어 고쳤다가 "안되면 말고!"하는 식으로 한 세대를 시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

신중하게 애써 만든 교육제도라면 무에 그리 몹쓸 제도가 있겠는가? 만들 때 신중해야 고치는 자세가 무겁게 된다. 근본을 지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보완해 가면서 괜찮은 교육제도 하나 정착시키는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드는데 신중하지 못하니 고치는데도 경솔하고, 그래서 또 몇 년을 못가 근본을 뜯어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한 혼란에 휩싸여 희생당한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속죄를 할 것인가? '삼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제도의 근간은 30년 안에는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입법을 먼저 하고 나면 함부로 만들거나 고치자는 소리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요, 신중하게 세워진 정책이나 제도가 한 30년 다듬어지다 보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교육제도를 지닌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표를 얻고자 하니 급조된 교육정책이라도 하나 들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들. 이 모든 집단들이 함께 우리의 교육 정책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집단들이 함께 반성하고 올바른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이러한 파행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정책 가운데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온 '삼불'이 문제된 이 시점에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선정적으로 표심에 호소하는 방식을 중지하자. 국민들도 자신의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깔린 섣부른 전문가 행세를 그만두고, 교육정책이 정치적 색채에 물들어 쉽게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공심으로 돌아가 보자. 정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에 부합하게 신중하고도 사려깊게 교육정책을 생각하는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귀하디 귀한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섣부른 교육정책에 끊임없이 시험용 동물처럼 희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삼불'이 아니라 교육정책만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일불'을 주장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불자의 눈

승가와 화합을 다시 생각한다

2표의 힘, 조계종 제173회 임시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개헌이 가능한 52표에서 2표가 모자랐다.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 했던 종정스님의 유시가 무산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종헌개정안의 부결을 지켜보며 '승가'와 '화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종정 법전스님의 유시에 담겼듯이 승가와 화합은 다른 말이 아니다. 승가란 단순히 스님들의 집단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구하는 좋은 벗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승가집단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다. 사심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종헌 개정안을 놓고 집행부는 종단의 오랜 숙제를 이번에는 꼭 풀겠다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 때문에 종정스님도 유시를 내려 화합을 독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종회라는 '정치적' 기구는 반드시 통일된 의견으로 자리하지 않는다. 화합이라는 대의명분과 계파의 실리라는 현실이 투표를 하게 했고 2표의 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법장스님 재임 당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화합과 정치현실이라는 방정식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인 듯 하다. 하지만 중앙종회가 대부분의 불자들은 '정치'보다는 화합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고종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명품'

태고종이 특별한 법석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은 종단 중흥에 앞장서 온 140여명의 유공선사(有功先師)들을 위해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범패 등 전통 의식을 계승한 것을 종단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는 태고종다운 발상이다.

일제강점기 꺼져 가는 불교의 맥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선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종단인들 존재하겠는가? 크게는 민족이나 국가 작게는 특정 단체가 그 근본뿌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숭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이 없이 현재와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평탄치 않은 역사를 가진 우리는 앞 세대의 피와 땀으로 오늘이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태고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종단의 여러 난맥상을 화합으로 극복하자는 종단적 합의를 드러낸 것이기도 해 더 의미가 크다. 지난해 태고종은 선암사 사태, 황룡사 사건 등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듯 태고종은 종단 화합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며 전통문화전승관 건립불사를 원만히 회향했다.

그래서 태고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로 뜻 깊게 봉행된 '명품'이라 할 만하다. 이런 신선함을 바탕으로 좀 더 정진해 나간다면 태고종의 미래는 훨씬 더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5. 절대선은 절대악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근본주의 전쟁 부추기며 인류 위협…폐쇄성 극복돼야

종교근본주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과학사상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여 반동적으로 일어난 일종의 종교운동이다. 중세까지 종교는 정치 · 과학 · 철학 · 예술 등의 여러 분야와 미분화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갈릴레오(1564~1642), 뉴턴(1642~1727), 다윈(1809~1882)이 주도한 과학혁명을 거치는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 기독교에 가장 위협적이고 큰 타격을 준 것은 1859년 '종의 기원'이란 저서로 발표된 다윈의 '진화론'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기독교는 스스로의 권위를 다시 찾으려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1881년 프리스턴대학의 하지와 워필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창하게 된다. 그 핵심교리는 철저하게 문자주의에 기초한 소위 '성서(聖書)무오류설(無誤謬說)'로서 타종교인은 물론 같은 종교인이라 해도 신앙 노선이 다르면 거부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근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후 개신교 보수운동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개신교 교회모습.

근본주의는 20세기 초반까지 세를 얻다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등 현대과학의 풍성한 성과로 인해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1930년대 이후 퇴조하기 시작했는데, 제 1차 세계대전후 미국 개신교 내의 보수운동으로 다시 고개를 들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전후로 동양의 불교와 명상이 미국 내에서 붐을 일으키는데다, 월남전에서 패망하면서 체면을 구긴 미국은 1978년 레이건 대통령을 내세워 사회분위기를 다시 기독교 근본주의로 몰아감으로써 새로운 탈출구로 삼는다. 레이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성경의 날을 선포하고, "악의 리비아와 선의 이스라엘의 갈등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었다"고 선언한 뒤 리비아에 무자비한 폭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이 막을 내린 데 힘입어 자존심을 회복한 미국은, 세계 유일 최강국이란 위상이 기독교 근본주위에서 온다고 착각한 나머지 반미 · 반기독교 세력인 이슬람권을 응징하기 위해 거침없이 걸프전,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등 수 차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 그 기세는 가히 신정일치(神政一致)라 할 만큼 조지 W 현 부시 대통령 시대에 정점에 달한 듯하다. 9.11 이후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상황판단에 따른 선제공격, 즉 이른바 예방전쟁이란 부시 닥트린이 나오게 된 것도 '악의 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만이 신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관장한다고 믿는 독선과 오만 때문이다. 그는 이라크전에 앞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협의했다"고 말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 세계를 향해 주저 없이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편'이라고 윽박지르며 줄세우기를 꾸준히 시도해왔다.

물론 2005년 6월 인터내셔널 헤랄드 트리뷴은 "미국이 기독교 원리주의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 등 근본주의에 대한 자성과 경고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극우 기독교도들의 지원과 이슬람 세력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시오니즘(유대주의)의 부추김에 의해 지구 전체를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선악놀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해가 얽히면 가까운 사이가 더 무서운 적이 되는가. 후한(後漢)을 멸망시키고 위(魏) 문제(文帝)로 등극한 조조의 장남 조비(曹丕)가 재주가 뛰어나 조조의 총애를 받아온 둘째 동생 조식(曹植)을 시기질투하여 "일곱 걸음 걷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짓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조식이 한탄하며 지었다는 유명한 칠보시(七步詩)가 생각난다. '콩을 삶는데 콩깍지로 불을 때니(煮豆燃豆萁)/콩이 가마솥 안에서 우는구나(豆在釜中泣)/원래 한 뿌리에서 생겨났건만(本是根同生)/어찌 이다지도 심히 들볶는가(相煎何太急)' 콩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한 뿌리에서 난 사이인 콩깍지가 자신을 삶아대니 야속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조비는 이 시를 보고 부끄러워하며 동생을 놓아주었다는데, 서로를 보듬고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종교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종교지도자들이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절대선은 절대악이다. 독선의 폐해를 이만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을까. 20세기 중반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앙드레이 시키는 그의 저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하여'에서 "감옥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감옥을 지었다. 모든 국경은 사라져야 한다고 해서 중국식 장벽을 쌓았다. 노동은 휴식과 쾌락이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강제노동을 도입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선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이고 또 죽였다"고 설파한 바 있다. 평등이란 '절대선'을 위해 출발한 사회주의가 어떻게 파멸이란 '절대악'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지적을 음미하면서 종교근본주의의 위험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깨끗한 세상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도선사 108사찰산사기도회 내소사서 환경지킴이 발대… 농산물 장터 · 군법당 위문도

야단법석이다. 전북 부안 내소사 일주문 앞엔 발디딜 틈이 없다. 주변에 있는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요즘 불교계에서 최대 인파가 몰리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이다. 3월 22일 오전 10시, 2500여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과 마중 나온 진원 스님(내소사 주지)을 선두로 가지런히 정렬된 5백여 미터의 전나무숲길을 통과해 대웅전 앞마당에 진(?)을 쳤다. 대웅전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능가산의 큰 바위봉우리들을 보자 순례객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이번 순례법회의 테마는 '환경'이다. 진원 스님이 불교환경연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연과 이 곳이 3년전 부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의 핵심 거점지역이라는 의미에서라고 108산사순례기도회의 한 관계자가 귀띔한다.

법회의 첫 순서는 '환경지킴이 발대식'이었다. 유영열 부안 부군수와 신현철 남부안 농협 조합장 등 지역 인사가 참석한 발대식에서 환경지킴이로 선발된 120여 회원들은 △산사의 생태환경과 수행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며 우리들 마음의 고향인 농촌과 함께 한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방생 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환경친화적 생활을 한다 △자원 절약을 생활화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환경보살의 일원이 되어 청정국토 건설에 앞장선다 는 내용의 다짐을 선서를 통해 결의했다. 또한 환경지킴이 회원들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오물 수거 집게도 수여됐다. 환경지킴이 대표로 선서한 이정화 보살(51)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직접 실천해 본적은 없었다"며 "순례기도법회가 끝난 뒤 방문 사찰의 뒷정리와 주변 자연보호 운동부터 해나가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108산사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들은 사찰 주변의 청소와 문화재 보호 감시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108산사순례기도회와 불교계 차원은 물론 범불교적으로 환경 지킴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 혜자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환경지킴이는 부처님 사상의 가르침을 봉대하며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산사주변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삼천리금수강산의 자연생태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인연 있는 생물들이 평화롭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해 국토 조성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진원 스님도 "농촌과 사찰이 하나가 되고 사찰 주변의 환경 캠페인까지 벌이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한국불교 사찰순례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라며 "오늘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계기로 기도순례 때만큼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인 컵을 가져오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이 끝난 뒤에는 혜자 스님이 유영열 부안 부군수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 보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군수는 부안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구입해 군수를 대신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108산사순례기도회에 전하기도 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혜자 스님으로부터 순례에 참가했다는 일종의 증표인 내소사가 새겨진 염주알을 한 개씩 받았다.

첫 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해 염주알이 벌써 일곱 개라며 즐거워하는 오영숙 보살(50)은 "순례기도에 참가한 뒤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맑아짐을 느낀다"며 "기도뿐만 아니라 군 법당 및 농촌 돕기, 환경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즐거워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기도 외에 지역 농산물 구입운동도 함께 벌여 교계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이날은 부안 특산물인 곰소젓갈과 마늘 된장, 양파김치, 들국화차 등을 파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경내에 개설돼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번 순례에는 지난달 논산훈련소 법당에 이어 군법당 초코파이 보시행사도 열렸다. 혜자 스님은 전주 호국충경사 장세훈 법사에게 장병불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초코파이 3만개 이상을 전달했다.

장 법사는 "한 달에 장병들에게 줄 초코파이 구입비로 70~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오늘 보시 받은 정도면 3개월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초코파이 구입비를 빔 프로젝트 등 장병불자 포교를 위한 시설물들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등이 동참한 주말 108산사순례기도회 1000여명도 24일 부안 내소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순례를 실시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4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전남 영암 도갑사를 방문해 여덟 번째 기도순례를 봉행한다.

글 · 사진/내소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08산사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 발대식' 현장.


직거래장터에서 순례기도회원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내소사 경내에 초코파이 3만개가 탑을 이루고 있다.


기도회원중 '환경지킴이'로 선발된 불자들.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내소사 주지 진원 스님(사진 왼쪽서 네번째)과 혜자 스님(왼쪽서 다섯번째)을 선두로 해 내소사 일주문에서 곧게 뻗은 5백여미터 전나무 숲길을 걸어 들어오고 있다.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상표등록
미스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kWh)	요금(원)	사용량(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 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래도록 경험많은 기술인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전화 031)792-8867~8 팩스 031)791-8871